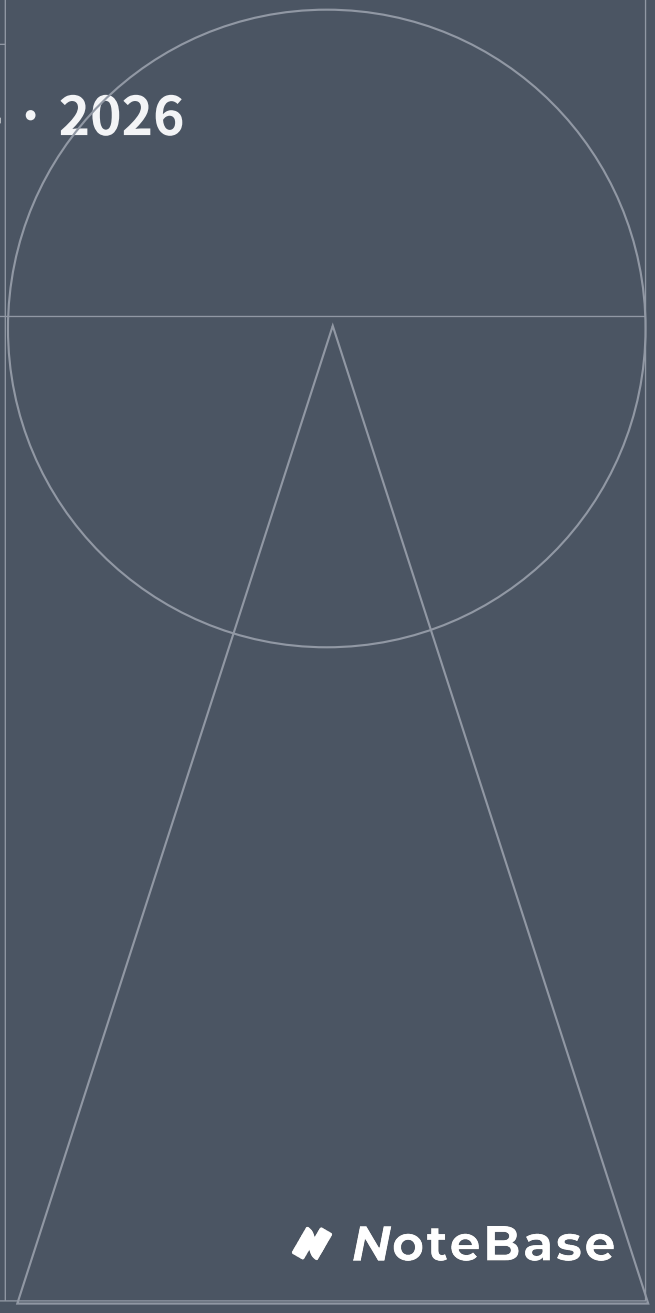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6

전문직/세무사 · 회계학개론 · 2026

문 1.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월할계산한다.)

◯ 20x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400,000이며,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300,000이다.
◯ 20x1년도의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이다.
◯ 20x1년 4월 1일 퇴직종업원에게 ₩12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x1년 7월 1일 현금 ₩160,000을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 20x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20x1년 이후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은 없다.
◯ 순확정급여부채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변동이 없다.

① ₩193,000 감소
② ₩198,000 감소
③ ₩200,000 감소
④ ₩202,000 감소
⑤ ₩211,000 감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확정급여제도의 당기손익 반영액을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400,000원, 기초 사외적립자산은 300,000원이므로 기초 순확정급여부채는 100,000원이다.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원이고 할인율은 연 10%이다. 4월 1일 급여 지급액 120,000원은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동시에 같은 금액만큼 감소시키며, 7월 1일 출연액 160,000원은 사외적립자산만 증가시킨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손익 반영액 = 당기근무원가 +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이다.
급여 지급은 채무와 사외적립자산 양쪽에 같은 시점·같은 금액으로 반영되므로 순이자비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 출연액은 출연 후 6개월간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발생시킨다.

계산 과정

1. 확정급여채무의 이자비용은 $400{,}000 \times 10\% - 120{,}000 \times 10\% \times \frac{9}{12} = 31{,}000$원이다.
2.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은
$300{,}000 \times 10\% - 120{,}000 \times 10\% \times \frac{9}{12} + 160{,}000 \times 10\% \times \frac{6}{12} = 29{,}000$원이다.
3. 순이자비용은 31,000원-29,000원=2,000원이다.
4. 당기손익에 인식할 확정급여원가는 200,000원+2,000원=202,000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은 202,000원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X. 193,000원 감소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당기근무원가 200,000원과 순이자비용 2,000원을 합한 202,000원 감소이다.
② X. 198,000원 감소는 순이자비용의 방향이나 월할계산을 잘못 반영한 금액이다. 올바른 순이자비용은 2,000원 비용이므로 202,000원 감소이다.
③ X. 200,000원 감소는 당기근무원가만 반영하고 순이자비용 2,0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202,000원 감소이다.
④ O. 당기근무원가 200,000원에 순이자비용 2,000원을 더하면 당기순이익이 202,000원 감소한다.
⑤ X. 211,000원 감소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급여 지급이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에 미치는 동일한 효과를 상쇄하고 출연액의 6개월분 이자수익을 반영하여 202,000원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퇴직급여 지급액 120,000원을 당기비용으로 다시 더하면 안 된다. 이 금액은 이미 존재하던 확정급여채무의 결제이며,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동시에 줄인다. 또한 7월 1일 출연액의 이자수익은 연간 전액이 아니라 6개월분인 8,000원만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당기근무원가를 잡고, 채무의 이자비용과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각각 거래 시점에 맞추어 월할계산한 뒤, 순이자비용을 당기근무원가에 더한다. 급여 지급처럼 채무와 자산을 동시에 줄이는 항목은 양쪽에 같은 기간을 반영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당기손익 반영 확정급여원가 = 당기근무원가 + 순이자비용이며, 중도 지급·출연은 거래일 이후 기간만 월할계산한다.

NoteBase

문 2. (주)세무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간접법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주)세무의 20x1년도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한다.)

◯ 당기순이익: ₩70,000 ◯ 법인세비용: ₩30,000
◯ 이자비용: ₩27,000 ◯ 감가상각비: ₩40,000
◯ 자산과 부채의 증감

계정과목	기초금액	기말금액
매출채권(순액)	₩120,000	₩140,000
선급이자	50,000	53,000
재고자산	110,000	100,000
이연법인세자산	25,000	32,000
매입채무	100,000	130,000
선수금	80,000	70,000
미지급급여	210,000	230,000
당기법인세부채	30,000	25,000

① ₩98,000
② ₩125,000
③ ₩127,000
④ ₩130,000
⑤ ₩138,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비현금 항목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증감을 조정하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순이익은 70,000원이고 감가상각비는 40,000원이다.
영업 관련 자산의 증가는 차감하고 감소는 가산하며, 영업 관련 부채의 증가는 가산하고 감소는 차감한다.
매출채권은 20,000원 증가, 선급이자는 3,000원 증가, 재고자산은 10,000원 감소, 이연법인세자산은 7,000원 증가하였다. 매입채무는 30,000원 증가, 선수금은 10,000원 감소, 미지급급여는 20,000원 증가, 당기법인세부채는 5,000원 감소하였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영업활동순현금흐름=당기순이익+비현금비용-영업자산 증가+영업자산 감소+영업부채 증가-영업부채 감소
간접법은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을 현금주의 영업성과로 바꾸는 방식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는 현금유출이 없는 법인세효과가 순이익에 반영된 것이므로 차감 조정한다.

계산 과정

1. 당기순이익에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를 가산하면 110,000원이다.
2. 자산 증감을 조정하면 매출채권 증가 20,000원과 선급이자 증가 3,000원 및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원을 차감하고, 재고자산 감소 10,000원을 가산한다.
3. 부채 증감을 조정하면 매입채무 증가 30,000원과 미지급급여 증가 20,000원을 가산하고, 선수금 감소 10,000원과 당기법인세부채 감소 5,000원을 차감한다.

$70{,}000 + 40{,}000 - 20{,}000 - 3{,}000 + 10{,}000 - 7{,}000 + 30{,}000 - 10{,}000 + 20{,}000 - 5{,}000 = 125{,}000$

따라서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은 125,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98,000원은 계산 결과 125,000원과 다르다. 이자비용 27,000원은 이미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차감해서는 안 된다. 틀린 금액 98,000원 → 올바른 금액은 125,000원이다.
② O — 모든 비현금 항목과 자산·부채 증감을 조정한 결과가 125,000원이므로 옳다.
③ X — 127,000원은 모든 조정을 반영한 125,000원보다 2,000원 많다. 표의 각 기초·기말 차이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127,000원이 아니라 125,000원이다. 틀린 금액 127,000원 → 올바른 금액은 125,000원이다.
④ X — 130,000원은 당기법인세부채 감소액 5,000원을 차감하지 않을 때 나오는 금액이다. 부채 감소는 현금유출이 장부상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차감해야 한다. 틀린 금액 130,000원 → 올바른 금액은 125,000원이다.
⑤ X — 138,000원은 모든 자산·부채 증감과 비현금 법인세효과를 올바른 부호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원을 포함한 전체 조정을 적용하면 138,000원이 아니라 125,000원이다. 틀린 금액 138,000원 → 올바른 금액은 125,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이자비용과 법인세비용을 별도로 다시 차감하는 중복 조정, 자산·부채 증감의 부호 반대,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7,000원의 누락이 핵심 함정이다. 특히 당기법인세부채가 5,000원 감소하면 이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해 비현금 항목을 먼저 조정하고, 각 계정을 자산과 부채로 나눈 뒤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차이에 부호를 붙인다. 자산 증가는 차감·자산 감소는 가산, 부채 증가는 가산·부채 감소는 차감으로 처리한 후 합계를 검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간접법의 운전자본 부호는 자산과 현금이 반대, 부채와 현금이 같은 방향이다.

NoteBase

문 3. 상품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는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의 20x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고자산이 ₩56,000일 때, 20x1년도 기초재고 원가는?

구분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	₩200,000
총매입액	₩530,000	712,000
매입할인	20,000	-
총매출액	-	830,000
매출환입	-	30,000
순인상액	-	35,000
순인하액	-	25,000
정상파손	-	5,000
비정상파손	14,000	22,000
종업원할인	-	15,000

① ₩106,000

② ₩120,000

③ ₩134,000

④ ₩145,900

⑤ ₩151,5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원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서 기말재고의 판매가와 평균원가율을 역산하여 기초재고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입할인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므로 순매입원가는 ₩530,000-₩20,000=₩510,000이다. 비정상파손은 원가 ₩14,000과 판매가 ₩22,000을 원가율 계산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정상파손 ₩5,000과 종업원할인 ₩15,000은 기말재고 판매가를 구할 때 차감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기말재고 원가는 기말재고 판매가에 평균원가율을 곱하여 구한다.
기말재고 원가=기말재고 판매가×평균원가율
기초재고 원가를 B라고 하면 평균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평균원가율=B+530,000-20,000-14,000200,000+712,000+35,000-25,000-22,000

계산 과정

1. 원가율 계산에 사용할 조정 판매가 합계는
₩200,000+₩712,000+₩35,000-₩25,000-₩22,000=₩900,000이다.
2. 기말재고 판매가는 ₩900,000-(₩830,000-₩30,000)-₩5,000-₩15,000=₩80,000이다.
3. 기말재고 원가가 ₩56,000이므로 평균원가율은 $56{,}000/80{,}000 = 70\%$이다.
4. 원가율 계산식은 $(B + 496{,}000)/900{,}000 = 70\%$이므로 $B + 496{,}000 = 630{,}000$, 따라서 $B = 134{,}000$이다. 기초재고 원가는 ₩134,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6,000은 역산식에서 구한 ₩134,000과 다르다. '₩106,000'은 '₩134,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120,000은 $B + 496{,}000 = 630{,}000$을 충족하지 않는다. '₩120,000'은 '₩134,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134,000을 대입하면 조정 원가 합계는 ₩630,000이고, ₩630,000/₩900,000=70%이다. 이를 기말재고 판매가 ₩80,000에 적용하면 기말재고 원가 ₩56,000이 된다.
④ X — ₩145,900은 계산된 기초재고 원가보다 ₩11,900 많다. '₩145,900'은 '₩134,0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151,500은 계산된 기초재고 원가보다 ₩17,500 많다. '₩151,500'은 '₩134,0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매출환입 ₩30,000은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 ₩800,000을 만든다. 매입할인은 원가 열에서 차감하고, 비정상파손은 원가율 계산 전에 원가와 판매가 양쪽에서 제외한다. 정상파손과 종업원할인은 기말재고 판매가 계산에서 차감한다는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정 판매가 합계와 기말재고 판매가를 구하고, 기말재고 원가를 기말재고 판매가로 나누어 평균원가율을 역산한 뒤, 그 원가율을 원가율 계산식에 대입하여 미지의 기초재고 원가를 구한다.

암기 포인트

비정상파손은 원가율의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제외하고, 정상파손은 기말재고 판매가를 줄인다.

NoteBase

문 4. 20x1년 초 설립된 (주)세무는 단일상품만 판매하고 있고,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를 함께 확인한다. (주)세무의 20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80이며, 실제 수량은 380개로 확인되었다. (주)세무는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세무의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가 ₩108,000일 때, 20x1년 말 재고자산의 정상감모수량은?

일자	적요	수량	단위당 원가
1월 8일	매입	300개	₩200
3월 2일	매출	250	-
6월 9일	매입	300	200
7월 13일	매출	250	-
12월 13일	매입	300	200

① 2개

② 6개

③ 10개

④ 18개

⑤ 20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동평균법으로 장부상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원가를 구한 뒤,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정상감모원가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분리하여 정상감모수량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모든 매입의 단위당 원가는 200원이므로 이동평균 단가도 계속 200원이다. 총매입수량은 900개, 총매출수량은 500개이므로 기말 장부수량은 400개이다. 실제수량은 380개이므로 총감모수량은 20개이다.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만,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이므로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사용할 공식

보고된 매출원가 = 매출분 장부원가 + 정상감모원가 + 재고자산평가손실이다. 정상감모수량을 q라 하면 정상감모원가는 $200q$원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단위당 180원으로 원가 200원보다 낮으므로 평가손실은 실제재고 380개에 단위당 20원을 곱한다. 실제로 남아 있는 재고가 저가법의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분 장부원가는 500개 × 200원 = 100,000원이다.
2. 재고자산평가손실은 380개 × (200원 - 180원) = 7,600원이다.
3. 108,000원 = 100,000원 + $200q$원 + 7,600원이므로 정상감모원가는 400원이다.
4. $q = (108{,}000 - 100{,}000 - 7{,}600)/200 = 2$이므로 정상감모수량은 2개이다. 나머지 18개는 비정상감모수량이며 그 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선지 판단

① O — 2개를 정상감모로 처리하면 매출원가는 100,000원 + 400원 + 7,600원 = 108,000원이 되어 제시된 금액과 일치한다.
② X — '6개'가 틀렸다. 6개를 정상감모로 처리하면 매출원가는 108,800원이 된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③ X — '10개'가 틀렸다. 10개를 정상감모로 처리하면 매출원가는 109,600원이 된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④ X — '18개'가 틀렸다. 18개를 정상감모로 처리하면 매출원가는 111,200원이 된다. 올바르게는 '2개'이며, 18개는 비정상감모수량이다.
⑤ X — '20개'가 틀렸다. 이는 총감모수량 전부를 정상감모로 본 값이며, 이 경우 매출원가는 111,600원이 된다. 올바르게는 정상감모 2개, 비정상감모 18개이다.

오답 포인트

총감모 20개를 곧바로 정상감모로 보면 ⑤를 고르게 된다. 또한 평가손실은 장부수량 400개가 아니라 감모를 반영한 실제재고 380개에 적용하며,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이므로 주어진 매출원가의 역산식에 넣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계속기록법에 따른 장부수량과 매출분 원가를 계산하고,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로 총감모를 구한다. 다음으로 실제재고에 저가법을 적용해 평가손실을 계산한 뒤, 보고된 매출원가에서 매출분 원가와 평가손실을 빼서 정상감모원가와 수량을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장부수량 - 실제수량 = 총감모이며, 매출원가에는 정상감모와 실제재고의 평가손실만 포함되고 비정상감모는 기타비용으로 빠진다.

NoteBase

문 5.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②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④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법인세회계에서 당기법인세의 인식·측정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감액, 이연법인세의 측정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당기법인세는 당기와 과거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법인세이다. 미납액은 당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미사용 세액공제로 미래 법인세가 감소할 효익을 나타낸다. 따라서 관련 효익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만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당기와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과세당국에 지급할 의무이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② O.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O. 이연법인세자산의 효익을 사용할 만큼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부분만큼 장부금액을 감액한다.
④ O.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관련 자산의 회수 방식이나 부채의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효과를 반영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이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미래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익이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는 조건 자체는 맞지만 인식 대상을 자산이 아닌 부채로 바꾸었다.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이월은 미래 세금 부담을 늘리는 항목이 아니라 줄이는 항목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이면 이연법인세자산, 미래 법인세를 늘리는 효과이면 이연법인세부채로 판단한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암기 포인트

결손금·세액공제 이월은 미래 세금 감소이므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범위의 이연법인세자산'이다.

NoteBase

문 6.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다른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

②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③ 측정일에 자산의 매도나 부채의 이전에 대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이 없더라도,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을 고려한 거래가 측정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④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한다.

⑤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의 영향은 고려하나, 의무가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여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급하게 될 가격인 시장기준의 유출가격이다. 이 문제는 주된 시장, 최고 최선의 사용, 관측가능성, 거래원가, 비이행위험의 측정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된 시장과 가장 유리한 시장: 주된 시장은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량과 거래빈도가 가장 큰 시장이다. 주된 시장이 있으면 다른 시장의 순수취액이 더 유리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을 사용한다. 주된 시장이 없을 때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을 사용한다.
시장참여자 관점: 공정가치는 기업 고유의 의도나 사정을 반영하는 측정치가 아니라,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의 시장 상황에서 사용할 가정을 반영하는 측정치이다.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 시장참여자가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매도하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
거래원가와 비이행위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시장가격에서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는다. 부채의 공정가치에는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한 비이행위험 전체를 반영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시장의 가격이 더 유리하면 다른 시장의 가격을 사용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주된 시장이 있으면 주된 시장의 가격을 사용하고, 주된 시장이 없을 때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을 사용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시장참여자의 경제적 효익 창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매도하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

③ O
관측할 수 있는 시장거래나 시장정보가 없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측정일에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아래 가치평가기법과 이용 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유출가격을 추정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주된 시장의 가격에 '거래원가를 조정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거래원가는 거래 자체의 특성이지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므로 공정가치 측정가격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의 현재 위치가 자산의 특성이라면 주된 시장까지의 운송원가는 가격에서 조정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신용위험만 고려하고 의무의 이행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비이행위험 전체를 반영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가장 유리한 가격'이라는 직관으로 주된 시장의 우선순위를 뒤집게 만든다. ④는 가장 유리한 시장을 정할 때 거래원가를 고려한다는 사실과 공정가치 가격 자체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동하게 만든다. ⑤는 비이행위험과 신용위험을 같은 범위로 오해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주된 시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있으면 주된 시장,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을 선택한다. 이어서 비금융자산에는 시장참여자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반영하고, 시장자료가 없어도 시장참여자 관점의 측정일 유출가격을 추정하며, 거래원가는 가격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채에는 신용위험을 포함한 비이행위험 전체를 반영하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주된 시장 우선, 최고 최선의 사용 고려, 무관측이어도 시장참여자 관점, 거래원가 제외, 비이행위험 전체 반영이다.

NoteBase

문 7. 환율변동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②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④ 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외화거래의 최초 인식과 보고기간말 환산, 기능통화 변경,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 및 표시통화 공시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통화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고,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이다. 외화거래는 최초 인식할 때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한다. 보고기간말에는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비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해당 항목의 손익을 인식하는 곳과 같은 곳에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능통화가 변경되면 새로운 기능통화에 적용되는 환산절차를 변경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환율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이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면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O — 외화거래를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할 때에는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한다.
④ O —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에는 마감환율을 적용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에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⑤ O —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르면 그 사실, 기능통화의 명칭,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를 공시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환율변동효과를 언제나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고 바꿔 놓은 선지이다. 비화폐성항목에서는 환율변동효과만 따로 떼어 다른 손익 범주에 넣지 않고, 기초가 되는 비화폐성항목의 손익과 같은 범주에 인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항목이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확인한다. 비화폐성항목이면 역사적원가인지 공정가치인지에 따라 적용 환율을 정하고, 환율변동효과의 표시 장소는 해당 항목의 손익이 당기손익인지 기타포괄손익인지에 맞춘다.

암기 포인트

화폐성은 마감환율, 역사적원가 비화폐성은 거래일 환율, 비화폐성의 환율효과는 본체 손익을 따라간다.

NoteBase

문 8. (주)세무는 20x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건설기간 3년, 총 계약수익 ₩650,000)을 체결하였다. (주)세무는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건설계약 관련 연도별 당기발생원가 및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동 건설계약으로 인해 (주)세무가 20x2년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구분	20×1년	20×2년	20×3년
당기발생원가	₩200,000	₩220,000	₩300,000
완공 시까지 추가예정원가	300,000	280,000	-

① ₩20,000

② ₩60,000

③ ₩90,000

④ ₩110,000

⑤ ₩13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발생원가에 기초한 진행률로 전기까지의 이익을 계산한 뒤, 총예정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하게 된 연도에는 총예정손실과 이미 인식한 전기 이익을 함께 반영하여 당기 공사손실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계약수익은 650,000원이다.
20×1년 당기발생원가는 200,000원, 추가예정원가는 300,000원이다.
20×2년 당기발생원가는 220,000원, 추가예정원가는 280,000원이다.
20×2년 말 누적발생원가는 420,000원이고 총예정원가는 700,000원이다.

사용할 공식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 ÷ 총예정원가이다.
누적공사수익은 총계약수익 × 진행률이다.
총예정손실은 총예정원가에서 총계약수익을 뺀 금액이다.
총예정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당기 공사손실은 총예정손실에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이는 전기 누적이익을 모두 없애고 계약 전체의 예상손실까지 누적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총예정원가는 2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이고, 진행률은 200,000 ÷ 500,000 = 40%이다.
2. 20×1년 누적공사수익은 650,000 × 40% = 260,000원이므로, 누적이익은 260,000원 - 200,000원 = 60,000원이다.
3. 20×2년 말 총예정원가는 200,000원 + 220,000원 + 280,000원 = 700,000원이므로, 계약 전체의 총예정손실은 700,000원 - 650,000원 = 50,000원이다.
4. 20×2년에는 전기에 인식한 이익 60,000원을 없애고 총예정손실 50,000원까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당기 공사손실은 60,000원 + 50,000원 = 110,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20,000원은 총예정손실 50,000원과 전기 누적이익 60,000원을 함께 반영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당기 공사손실은 110,000원이다.
② X — 60,000원은 20×1년까지 인식한 누적이익이다. 20×2년 당기손실은 이 이익의 환입 60,000원에 총예정손실 50,000원을 더한 110,000원이다.
③ X — 90,000원은 20×2년 당기공사수익 130,000원과 당기발생원가 220,000원만 비교할 때 나오는 손실이다. 총예정손실을 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추가 원가 20,000원이 빠졌으므로, 올바른 당기 공사손실은 110,000원이다.
④ O — 전기 누적이익 60,000원의 환입과 계약 전체의 총예정손실 50,000원을 합하면 20×2년 공사손실은 110,000원이다.
⑤ X — 130,000원은 20×2년 당기공사수익이다. 20×2년 누적공사수익 390,000원에서 20×1년 누적공사수익 260,000원을 빼면 130,000원이 되며, 당기 공사손실은 11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계약 전체의 총예정손실 50,000원을 곧바로 20×2년 당기손실로 보면 안 된다. 20×1년에 이미 인식한 이익 60,000원도 20×2년에 모두 되돌려야 하므로 당기손실은 110,000원이 된다. 또한 ③의 90,000원은 당기발생원가만 반영한 값이고, ⑤의 130,000원은 당기공사수익이므로 손실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이익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최신 추정 총원가와 계약수익을 비교하여 총예정손실을 구한다. 총예정손실이 발생했다면 당기 공사손실은 '전기 누적이익의 환입 + 총예정손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적자계약 전환 연도의 손실 = 전기까지의 이익 환입 + 계약 전체의 총예정손실이다.

NoteBase

문 9. (주)세무는 구매금액 ₩2당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세무의 제품을 구매할 때 1포인트 당 ₩1의 할인과 교환할 수 있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은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대해서 20x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 20x1년 중에 (주)세무는 고객에게 총 ₩1,000,000을 판매하면서 500,000포인트를 제공하였다. 판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1,000,000이고 고정금액이다. (주)세무는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0.5(합계 ₩250,000)으로 추정하였다.
◯ 20x1년 말 현재 100,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500,000포인트 중 25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x2년 말 현재 180,0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교환되었고, (주)세무는 교환될 포인트 추정치를 새로 수정하여 500,000포인트 중 300,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① ₩40,000
② ₩80,000
③ ₩120,000
④ ₩180,000
⑤ ₩20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먼저 구한 뒤, 각 연도 말의 누적 교환량을 예상 총교환량으로 나눈 비율만큼 누적 수익을 인식하고 전기 인식액을 차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 거래가격: 1,000,000원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 1,000,000원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 250,000원
20x1년 말 누적 교환량과 예상 총교환량: 100,000포인트 / 250,000포인트
20x2년 말 누적 교환량과 수정된 예상 총교환량: 180,000포인트 / 300,000포인트
구해야 할 값은 20x2년 말 누적 수익이 아니라 20x2년도 당기 수익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포인트에 배분할 거래가격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000,000 × 250,0001,000,000+250,000=200,000원
각 보고기간 말 포인트 관련 누적 수익은 다음과 같다.
포인트 배분액 × 누적 교환 포인트예상 총교환 포인트
포인트 약속은 수행의무이므로 배분액 전부를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포인트가 교환되어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포인트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거래가격은 200,000원이다.
2. 20x1년 말까지의 누적 포인트 수익은 다음과 같다.
200,000 × 100,000250,000=80,000원
3. 20x2년 말에는 수정된 예상 총교환량 300,000포인트를 반영한다. 따라서 20x2년 말까지의 누적 포인트 수익은 다음과 같다.
200,000 × 180,000300,000=120,000원
4. 20x2년도 당기 수익은 누적 수익 120,000원에서 전기에 이미 인식한 80,000원을 차감한 40,000원이다.
120,000-80,000=40,000원

선지 판단

① O — 20x2년 말 누적 수익 120,000원에서 20x1년에 인식한 80,000원을 차감하면 20x2년도 수익은 40,000원이다.
② X — 80,000원은 20x1년도에 이미 인식한 포인트 수익이다. 틀린 금액 80,000원 → 올바르게는 20x2년도 수익 40,000원이다.
③ X — 120,000원은 수정된 예상 총교환량을 반영한 20x2년 말까지의 누적 수익이다. 틀린 금액 120,000원 → 올바르게는 전기 인식액 80,000원을 차감한 당기 수익 40,000원이다.
④ X — 180,000은 20x2년 말 누적 교환 포인트 수이지 수익 금액이 아니다. 틀린 금액 180,000원 → 올바르게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배분과 누적 진행률을 적용한 당기 수익 40,000원이다.
⑤ X — 200,000원은 포인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 총액으로, 아직 모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틀린 금액 200,000원 → 올바르게는 20x2년도에 추가로 인식하는 수익 4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20x2년 말 누적 수익 120,000원을 그대로 당기 수익으로 고르는 것이다. 문제는 '20x2년도에 인식할 수익'을 묻고 있으므로, 수정 추정치로 누적 수익을 다시 계산한 뒤 20x1년에 이미 인식한 8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또한 1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 0.5원은 포인트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배분에 사용되는 값이지, 교환 포인트 수에 단순히 곱해 당기 수익을 구하는 값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객충성제도 계산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으로 포인트 배분액 계산 → 보고기간 말 최신 예상 총교환량으로 누적 수익 계산 → 전기 누적 인식액 차감'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포인트 수익은 배분액에 누적 교환률을 곱해 누적으로 계산하고, 당기 수익은 당기 말 누적액에서 전기 말 누적액을 뺀 금액이다.

NoteBase

문 10.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 본사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연수합계법 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세무는 20x3년 초 동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를 3년으로 변경하였다. 동 건물은 20x2년 말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20x4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 건물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x4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구분	20×2년 말	20×4년 말
순공정가치	₩180,000	₩145,000
사용가치	190,000	135,000

① 영향없음

② ₩60,000 감소

③ ₩30,000 감소

④ ₩30,000 증가

⑤ ₩60,000 증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기초로 변경된 잔존내용연수와 연수합계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환입의 상한을 검토하여 20×4년 당기손익의 순효과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1,000,000, 잔존가치는 ₩100,000이므로 최초 상각대상금액은 ₩900,000이다. 20×2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80,000과 사용가치 ₩190,000 중 큰 ₩190,000이다. 20×3년 초에는 잔존내용연수가 3년으로 변경되므로 손상 후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3년의 연수합계법을 새로 적용한다. 20×4년 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145,000과 사용가치 ₩135,000 중 큰 ₩145,000이다.

사용할 공식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손상차손환입액은 (회수가능액, 손상이 없었다면 계산될 장부금액)-환입 전 장부금액이다. 손상차손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산되었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한을 함께 검토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최초 상각대상금액은 ₩1,000,000-₩100,000=₩900,000이고, 5년의 연수합계는 5 + 4 + 3 + 2 + 1 = 15이다.
2. 20×1년 감가상각비는 ₩900,000 × 5/15 × 6/12 = ₩150,000이다. 20×2년 감가상각비는 첫 상각연도의 나머지 6개월분 ₩150,000과 둘째 상각연도의 6개월분 ₩900,000 × 4/15 × 6/12 = ₩120,000을 합한 ₩270,000이다. 따라서 손상 전 20×2년 말 장부금액은 ₩580,000이다.
3. 20×2년 말 회수가능액이 ₩190,000이므로 손상차손 ₩390,000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은 ₩190,000이 된다.
4. 변경된 3년의 연수합계는 3 + 2 + 1 = 6이고, 손상 후 상각대상금액은 ₩190,000-₩100,000=₩90,000이다. 따라서 20×3년 감가상각비는 ₩90,000 × 3/6 = ₩45,000, 20×4년 감가상각비는 ₩90,000 × 2/6 = ₩30,000이다. 20×4년 말 환입 전 장부금액은 ₩115,000이다.
5. 손상이 없었다면 변경된 추정에 따른 20×4년 말 장부금액은 ₩580,000-₩480,000 × 3/6 - ₩480,000 × 2/6 = ₩180,000이다. 회수가능액 ₩145,000이 이 상한보다 작으므로 환입 후 장부금액은 ₩145,000이며, 손상차손환입액은 ₩145,000-₩115,000=₩30,000이다.
6. 20×4년 당기순이익에는 감가상각비 ₩30,000이 감소 요인, 손상차손환입 ₩30,000이 증가 요인으로 반영된다. 순효과는 ₩0이다.

선지 판단

① O. 20×4년 감가상각비 ₩30,000과 손상차손환입 ₩30,000이 서로 상쇄되므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영향은 없다.
② X. '₩60,000 감소'가 아니라 '영향없음'이 옳다. 감가상각비와 환입액을 모두 이익 감소로 처리하면 안 되며, 환입액은 이익 증가 요인이다.
③ X. '₩30,000 감소'가 아니라 '영향없음'이 옳다. 이는 감가상각비 ₩30,000만 반영하고 같은 금액의 손상차손환입을 누락한 결과이다.
④ X. '₩30,000 증가'가 아니라 '영향없음'이 옳다. 이는 손상차손환입 ₩30,000만 반영하고 감가상각비 ₩30,000을 누락한 결과이다.
⑤ X. '₩60,000 증가'가 아니라 '영향없음'이 옳다. 감가상각비는 이익 증가 항목이 아니므로 환입액과 더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20×4년의 손상차손환입액만 구하고 끝내는 것이 함정이다. 문제는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으므로 같은 연도의 감가상각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또한 회수가능액은 두 가치 중 큰 금액이며, 환입액 계산에서는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 상한도 확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손상 후 환입 문제는 '손상 전 장부금액 계산 → 회수가능액으로 손상 인식 → 변경된 추정으로 감가상각 → 환입 전 장부금액 계산 → 환입 상한 확인 → 당기 감가상각비와 환입액의 순효과 계산'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회수가능액은 큰 값, 환입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과 '손상이 없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값이다. 당기순이익 영향은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환입을 함께 본다.

문 11. (주)세무는 20x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x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x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x1년 7월 1일부터 20x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구분	20×1. 7. 1.	20×1. 10. 1.	20×1. 12. 1.	20×2. 7. 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200,000	₩300,000	₩100,000

차입금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20×1. 7. 1.	₩100,000	20×1. 12. 31.	8%
일반차입금 A	20×1. 1. 1.	500,000	20×2. 12. 31.	10%
일반차입금 B	20×1. 7. 1.	1,000,000	20×2. 6. 30.	6%

① ₩44,632

② ₩52,632

③ ₩55,211

④ ₩59,211

⑤ ₩80,0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특정차입금의 실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 운용수익을 차감하고,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 자본화이자율을 연평균지출액에 적용하여 20×2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1년 공사대금은 7월 1일 100,000원, 10월 1일 200,000원, 12월 1일 300,000원이다. 10월 1일 수령한 정부보조금 100,000원은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적격자산 지출액에서도 차감한다. 20×2년 7월 1일에는 100,000원을 추가 지출한다. 특정차입금 100,000원은 20×1년 말에 상환되었고, 일반차입금 A는 500,000원·연 10%, 일반차입금 B는 1,000,000원·연 6%이며 B는 20×2년 6월 30일에 상환된다. 전년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도 다음 연도의 연평균지출액에 포함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실제 차입원가에서 일시적 운용수익을 차감하여 구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자본화이자율=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 이자비용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 차입액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연평균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곱하되, 해당 기간의 실제 일반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계산 과정

1. 20×1년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은 500,000원×10\%+1,000,000원×6\%×(6)/(12)=80,000원이고, 가중평균 차입액은 500,000원+1,000,000원×(6)/(12)=1,000,000원이다. 따라서 자본화이자율은 $\frac{80,000}{1,000,000}$ = 8%이다.

2. 20×1년 자본화액
특정차입금 자본화액은 100,000원×8\%×(6)/(12)-20,000원×10\%×(3)/(12)=3,500원이다. 20×1년 전체 연평균지출액은
100,000원×(6)/(12)+200,000원×(3)/(12)+300,000원×(1)/(12)-100,000원×(3)/(12)=100,000원이다. 이 중 특정차입금으로 충당된 연평균액은 100,000원×(6)/(12)-20,000원×(3)/(12)=45,000원이므로 일반차입금 적용대상은 55,000원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5,000원×8\%=4,400원이고, 20×1년 총 자본화액은 3,500원+4,400원=7,900원이다.

3. 20×2년 연평균지출액
20×1년 말까지의 총 공사대금 600,000원은 20×2년 내내 남아 있고, 20×2년 7월 1일 지출액 100,000원은 6개월간 반영한다. 전년도 자본화액 7,900원은 전액 포함하고 정부보조금 100,000원은 차감한다. 따라서 연평균지출액은 600,000원+100,000원×(6)/(12)+7,900원-100,000원=557,900원이다.

4. 20×2년 자본화액
20×2년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과 가중평균 차입액도 각각 80,000원과 1,000,000원이므로 자본화이자율은 8%이다. 따라서 20×2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557,900원×8\%=44,632원이다. 이 금액은 실제 일반차입원가 8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 20×2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는 44,632원이므로 옳다.
② X — 52,632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특정차입금은 20×1년 말에 상환되어 20×2년에 그 이자비용을 더할 수 없으며, 올바른 금액은 44,632원이다.
③ X — 55,211원은 20×2년 연평균지출액 557,900원에 자본화이자율 8%를 적용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44,632원이다.
④ X — 59,211원은 전년도 자본화액 7,900원과 정부보조금 100,000원의 차감 효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금액은 44,632원이다.
⑤ X — 80,000원은 20×2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전체 이자비용일 뿐이다. 적격자산의 연평균지출액에 8%를 적용한 자본화액은 44,632원이며, 80,000원은 그 상한이다.

오답 포인트

정부보조금 100,000원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거나, 20×1년 자본화액 7,900원을 20×2년 연평균지출액에서 누락하기 쉽다. 또한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80,000원은 곧바로 자본화하는 금액이 아니라 자본화 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전년도 특정차입금 자본화액과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전년도 자본화액을 당기 연평균지출액에 포함하고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뒤, 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계산액이 당기 실제 일반차입원가를 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특정차입금은 실제 이자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하고, 일반차입금은 연평균지출액 × 가중평균이자율로 계산한다. 전년도 자본화액은 다음 연도 지출액에 포함하고 자산차감법의 정부보조금은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NoteBase

문 12. (주)세무의 20x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100,000(1주당 액면금액 ₩100, 발행주식수 1,000주)이고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은 ₩200,000이며, 이익잉여금은 ₩100,000으로 자본총계는 ₩400,000이다. 20x1년 중에 발생한 (주)세무의 자기주식거래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이다.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거래를 회계처리한다. (주)세무의 20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계는?

◯ 2월 2일: 자기주식 60주를 1주당 ₩600에 취득하였다.
◯ 3월 3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700에 처분하였다.
◯ 4월 4일: 자기주식 10주를 1주당 ₩500에 처분하였다.
◯ 9월 15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00에 처분하였다.
◯ 10월 30일: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① ₩341,000
② ₩351,000
③ ₩361,000
④ ₩405,000
⑤ ₩441,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과 당기순이익이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자본총계: ₩400,000
당기순이익: ₩50,000
자기주식 취득액: 60주 × ₩600 = ₩36,000
자기주식 처분대금: 20주 × ₩700 + 10주 × ₩500 + 20주 × ₩400 = ₩27,000
기말까지 처분하지 않은 자기주식 10주는 소각되었다.

사용할 공식

기말 자본총계=기초 자본총계+당기순이익-자기주식 취득대금+자기주식 처분대금
원가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차감이고 처분대금은 자본을 증가시킨다. 처분가격과 취득원가의 차이는 자기주식처분손익이라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 항목에서 조정한다. 남은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 내부 항목의 대체이므로 소각 시점의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자기주식 취득으로 자본총계가 ₩36,000 감소한다.
2. 세 차례 처분으로 받은 현금 합계 ₩27,000만큼 자본총계가 증가한다.
3. 당기순이익 ₩50,000을 더한다.
4. 남은 10주의 소각은 자기주식 ₩6,000을 제거하면서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등 다른 자본 항목을 같은 금액만큼 줄이는 자본 내부 대체이므로 자본총계에 영향이 없다.

₩400,000 + ₩50,000 - ₩36,000 + ₩27,000 = ₩441,000

선지 판단

① X — ₩341,000은 계산 결과 ₩441,000과 일치하지 않는다. '₩341,000'은 '₩441,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351,000은 기초 자본총계에 당기순이익과 자기주식 거래의 순효과를 반영한 ₩441,000과 다르다. '₩351,000'은 '₩441,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361,000은 자기주식 취득액 ₩36,000과 처분대금 ₩27,000 및 당기순이익 ₩50,000을 모두 반영한 값이 아니다. '₩361,000'은 '₩441,000'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405,000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액만 차감하고 처분대금의 자본 증가 효과를 빠뜨리면 안 된다. '₩405,000'은 '₩441,000'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기초 자본총계 ₩400,000에 당기순이익 ₩50,000을 더하고, 자기주식 취득대금 ₩36,000을 빼며, 처분대금 ₩27,000을 더하면 ₩441,000이다.

오답 포인트

자기주식 처분가격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거나, 자기주식 소각 때 자본총계가 다시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원가법의 자기주식 처분 차이는 자본 내부에서 조정되고, 소각도 자본 내부 항목의 대체이므로 두 경우 모두 별도의 당기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총계 문제에서는 기초 자본에 당기순이익을 더한 뒤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빼고 처분대금은 더한다. 마지막으로 소각은 자본 내부 대체인지 확인하여 자본총계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원가법상 자기주식은 취득하면 자본 감소, 처분하면 받은 대금만큼 자본 증가, 소각하면 자본총계 불변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중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ㄴ.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ㄷ.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ㄹ.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내부 프로젝트에서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구활동은 새로운 지식이나 여러 대체안을 탐색·제안·평가·선택하는 초기 탐색 활동이다. 개발활동은 연구성과나 지식을 이용하여 생산·사용 전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 시제품, 공구·금형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이다.
ㄱ과 ㄴ은 개발활동이고, ㄷ과 ㄹ은 연구활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지그·주형·금형의 설계이고, ㄴ은 최종 선정안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이므로 둘 다 개발활동이다.
② X — ㄷ의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연구활동이다. 틀린 구성은 'ㄱ, ㄷ'이고, 올바르게는 개발활동인 'ㄱ, ㄴ'이다.
③ X — ㄴ은 개발활동이지만 ㄷ은 여러 대체안을 탐색하는 연구활동이다. 틀린 항목은 ㄷ이고, 올바르게는 ㄷ 대신 ㄱ을 넣은 'ㄱ, ㄴ'이다.
④ X — ㄴ은 개발활동이지만 ㄹ의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설계·평가·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연구활동이다. 틀린 항목은 ㄹ이고, 올바르게는 ㄹ 대신 ㄱ을 넣은 'ㄱ, ㄴ'이다.
⑤ X — ㄷ과 ㄹ은 모두 여러 대체안을 탐색하거나 제안·평가·선택하는 연구활동이다. 틀린 구성은 'ㄷ, ㄹ'이고, 올바른 개발활동의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ㄹ에 '설계'와 '최종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 개발활동처럼 보이지만, 판단의 핵심은 '여러 가지 대체안'을 비교하는 단계라는 점이다. 여러 대체안을 찾고 고르는 단계는 연구활동이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실제로 설계·제작·시험하는 단계가 개발활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대체안의 탐색·제안·평가·선택'이면 연구활동으로, '최종 선정안이나 시제품·공구·금형의 구체적 설계·제작·시험'이면 개발활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안을 찾고 고르면 연구, 최종안을 만들고 시험하면 개발이다.

NoteBase

문 14.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호텔을 소유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

②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면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③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분류, 공정가치모형의 계속 적용, 계정대체 및 후불취득의 회계처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재화·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또는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다.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해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투자부동산은 시장거래가 줄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얻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가모형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체 계약에서 유의적이므로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자가사용부동산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이다.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투자부동산은 비교 가능한 시장거래가 줄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워져도 처분하거나 용도가 변경될 때까지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O —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면 대체일의 공정가치와 종전 장부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O —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업원이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가사용부동산이다.
⑤ O — 후불조건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이며,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이는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시장자료가 부족해지면 공정가치모형을 원가모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함정이다.
공정가치모형을 이미 적용해 온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거래의 감소나 시장가격 정보의 부족만으로 측정모형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유 목적과 사용 주체로 투자부동산인지 자가사용부동산인지 구분한다. 이어 '공정가치모형을 이미 적용해 왔는가'를 확인하고, 이미 적용했다면 시장자료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가모형으로 전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 경영 호텔·종업원 사용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고, 공정가치모형은 시장자료 감소만으로 원가모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NoteBase

문 15. 농림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②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③ 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④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⑤ 원양어업, 천연림 벌채 등과 같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측정 기준, 생산용 식물의 범위, 농림어업활동의 성립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물자산은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며,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다만 최초 인식 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다.
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이며,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생산용 식물은 농산물의 생산·공급에 사용되고 두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살아 있는 식물이다. 한해살이 작물이나 식물 자체를 수확물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농림어업활동은 판매하거나 수확하기 위하여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관리되지 않은 자원을 단순히 채취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예외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O. 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두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생산물을 산출하는 식물이 아니므로 생산용 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O. 목재용 나무처럼 식물 자체를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수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식물이 아니므로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⑤ O. 원양어업이나 천연림 벌채처럼 관리되지 않은 자원을 단순히 수확하는 활동은 생물적 변환을 관리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처분부대원가의 부호이다.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처분으로 유입될 순액을 나타내기 위해 처분부대원가를 더하지 않고 뺀다. 또한 생산용 식물은 식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에 걸쳐 다른 수확물을 생산하는 수단인지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측정 선지는 '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인지 먼저 확인한다. 식물 분류 선지는 식물 자체를 수확하는지, 여러 기간 동안 다른 생산물을 반복하여 산출하는 수단인지 구별한다. 활동 범위 선지는 생물적 변환을 관리하는 과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수확물은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다. 생산용 식물은 여러 기간에 걸친 생산수단이고, 한해살이 작물과 목재용 나무는 제외된다.

NoteBase

문 16. (주)세무의 20x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1,000,000(1주당 액면금액 ₩1,000)이고, 자기주식과 우선주자본금은 없다. (주)세무는 20x1년 4월 1일 무상증자를 20% 실시하였다.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이 ₩800일 경우,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는? (단, 20x1년 말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는 없었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기초 미행사 신주인수권: 6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주당 ₩3,000
◯ 20x1년도 당기순이익: ₩1,200,000

① ₩3,000
② ₩3,750
③ ₩5,000
④ ₩6,000
⑤ ₩7,5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무상증자를 소급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자기주식법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증분주식수를 이용하여 평균시가를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 보통주식수는 1,000,000원 ÷ 1,000원 = 1,000주이다.
20% 무상증자로 200주가 늘어나며,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주식 수만 증가하므로 주당이익 계산에서는 기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소급 조정한다. 따라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200주이다.
당기순이익은 1,200,000원이고 희석주당이익은 800원이며, 기초 미행사 신주인수권은 600개, 행사가격은 1주당 3,000원이다. 구할 값은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이다.

사용할 공식

희석주당이익은 다음과 같다.
희석주당이익=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증분주식수
신주인수권의 증분주식수는 자기주식법에 따라 계산한다. 평균시가를 P라 하면 다음과 같다.
증분주식수=600-600×3,000P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금액으로 평균시가에 주식을 다시 매입한다고 가정하고, 발행주식수와 재매입 가능 주식수의 차이만 희석효과로 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희석주당이익으로부터 희석주식수를 포함한 분모를 구한다.
희석 분모=1,200,000800=1,500주
2. 신주인수권에서 발생한 증분주식수는 1,500주 - 1,200주 = 300주이다.
3. 자기주식법 공식에 대입하여 평균시가를 구한다.
$300 = 600 - \frac{600 \times 3{,}000}{P}$
1,800,000P=300, P=6,000원
따라서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는 6,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평균시가는 3,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다. 3,000원은 문제에서 주어진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므로 평균시가와 구분해야 한다.
② X — 평균시가는 3,750원이 아니라 6,000원이다. 3,750원을 자기주식법에 대입하면 증분주식수가 300주가 되지 않아 희석 분모 1,500주를 충족하지 못한다.
③ X — 평균시가는 5,000원이 아니라 6,000원이다. 5,000원을 대입하면 증분주식수는 $600 - 600 \times 3{,}000/5{,}000 = 240$주로, 필요한 300주보다 적다.
④ O — 평균시가 6,000원을 대입하면 증분주식수는 $600 - 600 \times 3{,}000/6{,}000 = 300$주이고, 희석주당이익은 $1{,}200{,}000/(1{,}200 + 300) = 800$원이 된다.
⑤ X — 평균시가는 7,500원이 아니라 6,000원이다. 7,500원을 대입하면 증분주식수는 $600 - 600 \times 3{,}000/7{,}500 = 360$주로, 필요한 300주보다 많다.

오답 포인트

4월 1일 무상증자를 일반 유상발행처럼 9개월만 가중하면 안 된다. 무상증자는 기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소급 조정하므로 기본 가중평균주식수는 1,200주이다. 또한 평균시가와 3,000원의 행사가격을 같은 값으로 보거나, 신주인수권 600개 전부를 희석 분모에 더하는 것도 잘못이다. 자기주식법에서는 행사대금으로 평균시가에 재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상증자를 소급 반영하여 기본 가중평균주식수를 구한다. 다음으로 순이익을 주어진 희석주당이익으로 나누어 희석 분모를 역산한다. 두 분모의 차이를 신주인수권의 증분주식수로 놓고 자기주식법 공식에 대입하면 평균시가를 구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무상증자는 소급 조정,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법, 증분주식수는 발행 가정 주식수에서 재매입 가정 주식수를 뺀 값이다.

NoteBase

문 17.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연속상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발행 시 시장이자율은 6%이며, 사채발행비 ₩26,422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세무는 20x1년도 이자비용으로 ₩101,243을 인식하였다. (주)세무는 사채의 60%를 20x3년 1월 1일 ₩270,000에 조기상환하였으며, 나머지 40%는 만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유효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500,000
◯ 이자지급: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상 환: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500,000씩 연속상환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6%	5%	6%
1	0.9524	0.9434	0.9524	0.9434
2	0.9070	0.8900	1.8954	1.8334
3	0.8638	0.8396	2.7232	2.6730

① 영향없음
② ₩4,388 증가
③ ₩10,650 증가
④ ₩15,279 증가
⑤ ₩24,388 증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연속상환사채의 최초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을 구한 뒤, 조기상환이익에서 잔존 사채의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20x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x1년 말 현금흐름은 원금 ₩500,000과 이자 ₩75,000을 합한 ₩575,000이다. 20x2년 말은 ₩550,000, 20x3년 말은 ₩525,000이다.
사채발행비 ₩26,422은 금융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20x3년 1월 1일 현재 남은 액면금액은 ₩500,000이며, 이 중 60%를 ₩270,000에 조기상환하고 40%는 만기까지 보유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최초 장부금액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사채발행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이자비용=기초 장부금액×유효이자율
조기상환손익=제거하는 장부금액-상환대가
당기순이익 영향=조기상환이익-잔존 사채 이자비용
일부만 조기상환하므로 상환 비율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에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1. 발행가액은 ₩575,000×0.9434＋₩550,000×0.8900＋₩525,000×0.8396＝₩1,472,745이다. 따라서 최초 장부금액은 ₩1,472,745－₩26,422＝₩1,446,323이다.
2. 주어진 20x1년도 이자비용으로부터 유효이자율은 ₩101,243÷₩1,446,323＝7.00%이다.
3. 20x1년 말 장부금액은 ₩1,446,323＋₩101,243－₩575,000＝₩972,566이다.
4. 20x2년도 이자비용은 ₩972,566×7%＝₩68,080이고, 20x2년 말 장부금액은 ₩972,566＋₩68,080－₩550,000＝₩490,646이다.
5. 조기상환하는 60%의 장부금액은 ₩490,646×60%＝₩294,388이다. 상환대가가 ₩270,000이므로 조기상환이익은 ₩24,388이다.
6. 잔존 40%의 장부금액은 ₩490,646×40%＝₩196,258이고, 20x3년도 이자비용은 ₩196,258×7%＝₩13,738이다.
7. 20x3년도 당기순이익 영향은 ₩24,388－₩13,738＝₩10,650 증가이다.

선지 판단

① X — ‘영향없음’은 조기상환이익과 잔존 사채의 이자비용을 모두 누락한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이 ₩10,650 증가한다.
② X — ‘₩4,388 증가’는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조기상환이익 ₩24,388에서 잔존 사채 이자비용 ₩13,738을 차감하여 ₩10,650 증가한다.
③ O — 조기상환이익 ₩24,388과 잔존 사채 이자비용 ₩13,738을 함께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10,650 증가한다.
④ X — ‘₩15,279 증가’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잔존 사채 이자비용을 정확히 반영한 값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이 ₩10,650 증가한다.
⑤ X — ‘₩24,388 증가’는 조기상환이익만 반영하고 잔존 40% 사채의 20x3년도 이자비용 ₩13,738을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는 순효과가 ₩10,650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⑤의 ₩24,388은 조기상환이익 자체일 뿐 당기순이익의 최종 영향이 아니다. 20x3년에도 잔존 40% 사채에서 이자비용 ₩13,738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드시 차감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속상환사채는 연도별 원금 잔액에 따른 이자 현금흐름을 먼저 배열하고, 최초 장부금액→유효이자율→조기상환 직전 장부금액→제거 비율의 장부금액→잔존 부분의 당기 이자비용 순서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일부 조기상환의 당기손익은 '제거 장부금액－상환대가'만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사채의 당기 이자비용까지 함께 반영한다.

NoteBase

문 1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계추정치 변경은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②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③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회계정책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 전기오류 수정의 구분과 각각의 적용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회계정책 변경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는 원칙이나 측정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경험 등에 따라 추정금액을 수정하는 것으로, 오류수정이 아니며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전기오류 수정은 과거 재무제표 작성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사용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으로, 중요한 전기오류는 원칙적으로 소급 재작성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또는 추가 경험의 축적에 따른 추정치 수정은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추정치 변경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이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원칙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비교금액을 소급 재작성하며, 그 수정액을 발견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O — 원가와 공정가치처럼 측정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은 회계정책 변경이다. 회계정책 변경인지 회계추정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한다.
④ O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는 것은 해당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데 따른 회계정책 변경이며, 자발적인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⑤ O — 당기 기초에 과거기간 전체의 오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오류를 발견한 시점과 오류의 효과를 회계처리하는 귀속기간을 혼동하게 한다. 전기오류는 발견기간의 손익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 비교정보를 원칙적으로 소급 재작성한다. 다만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⑤와 같이 가능한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수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경 원인을 본다. 새로운 정보·경험에 따른 추정 수정이면 회계추정치 변경이므로 전진 적용하고, 원칙·측정기준의 변경이면 회계정책 변경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과거에 이용 가능했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사용했다면 전기오류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 재작성한다.

암기 포인트

정책은 원칙적으로 소급, 추정은 전진, 전기오류는 원칙적으로 소급 재작성이다.

NoteBase

문 19.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8%,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x2년 1월 1일 재무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채의 조건을 변경(무이자로 20x5년 12월 31일 원금 ₩1,000,000 일시 상환)하였으며, 조건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장이자율은 20x1년 초 10%이고, 20x2년 초 12%이다. 동 사채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사채발행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12%	8%	10%	12%
1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	0.8573	0.8265	0.7972	1.7833	1.7355	1.6901
3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4
5	0.6806	0.6209	0.5674	3.9927	3.7908	3.6048

① ₩206,017 증가

② ₩213,977 증가

③ ₩248,517 증가

④ ₩253,517 증가

⑤ ₩282,277 증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실질적인지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판정한 뒤, 실질적 조건변경이면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변경일의 시장이자율로 새 부채를 인식하여 20x2년의 제거이익과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최초 유효이자율은 10%이고, 20x2년 초 조건변경일의 시장이자율은 12%이다.
기존 사채의 20x1년 말 장부금액을 먼저 구한다. 변경 후 현금흐름은 20x5년 말에 지급할 원금 1,000,000원뿐이므로, 20x2년 초부터 만기까지 할인기간은 4년이다.
실질적 조건변경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변경 후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하고, 실질적 조건변경으로 판정된 뒤 새 금융부채를 인식할 때에는 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최초 발행금액은 원금의 현재가치와 표시이자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계산한다.
$1{,}000{,}000 \times 0.7513 + 80{,}000 \times 2.4869$
실질적 조건변경 판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ft|기존 부채 장부금액-변경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최초 유효이자율)|기존 부채 장부금액×100\%
이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이 문제에서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수수료 조정은 없다.

계산 과정

1.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1,000,000×0.7513+80,000×2.4869=950,252원
2. 20x1년 유효이자비용은 95,025원이고 현금이자는 80,000원이므로, 20x2년 초 기존 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950,252+95,025-80,000=965,277원
3. 변경 후 원금의 현재가치를 최초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하면 683,000원이다.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282,277원이고 그 비율은 약 29.24%이므로 10% 기준을 넘는다. 따라서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한다.
1,000,000×0.6830=683,000원
$\frac{282{,}277}{965{,}277} \times 100\% \approx 29.24\%$
4. 새 금융부채는 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로 할인한 635,500원으로 인식한다. 기존 부채 제거이익은 329,777원이다.
1,000,000×0.6355=635,500원
965,277-635,500=329,777원
5. 20x2년 이자비용은 새 금융부채 장부금액에 12%를 적용한 76,260원이다. 따라서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순액으로 253,517원 증가한다.
635,500×12\%=76,260원
329,777-76,260=253,517원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06,017원 증가는 10%로 할인한 차이 282,277원을 제거이익처럼 사용한 뒤 12% 이자비용 76,260원을 차감한 값이다. 10% 할인액은 실질성 판정에 쓰며, 제거이익은 새 부채의 12% 할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253,517원 증가이다.
② X — 213,977원 증가는 조건변경을 실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282,277원의 조정이익에서 10% 이자비용 68,300원을 뺀 값이다. 이 문항은 차이비율이 약 29.24%이므로 기존 부채를 제거해야 하며, 올바르게는 253,517원 증가이다.
③ X — 248,517원 증가는 제거이익 329,777원에서 이자비용을 81,260원으로 과대 계산한 결과에 해당한다. 새 부채가 635,500원이고 유효이자율이 12%이므로 20x2년 이자비용은 76,260원이며, 올바르게는 253,517원 증가이다.
④ O — 기존 부채 제거이익 329,777원에서 20x2년 이자비용 76,260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253,517원 증가한다.
⑤ X — 282,277원은 기존 장부금액 965,277원과 변경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683,000원의 차이로서 10% 테스트에 쓰이는 금액이다. 이를 곧바로 당기순이익 증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부채 제거와 20x2년 이자비용까지 반영한 올바른 금액은 253,517원 증가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할인율의 용도를 섞는 것이다. 최초 유효이자율 10%는 변경 후 현금흐름을 할인하여 10% 테스트를 하는 데 사용하고, 실질적 조건변경 후 새 부채의 최초 측정과 후속 이자비용에는 변경일의 시장이자율 12%를 사용한다. 또한 20x2년 당기순이익 영향에는 조건변경일의 제거이익뿐 아니라 그 해의 이자비용도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건변경 직전 장부금액 계산 → 최초 유효이자율로 10% 테스트 → 실질적 조건변경이면 기존 부채 제거 및 변경일 시장이자율로 새 부채 측정 → 해당 연도의 새 부채 이자비용 차감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0% 테스트는 최초 유효이자율, 실질적 조건변경 후 새 부채는 변경일 시장이자율, 당기손익은 제거손익과 당기 이자를 함께 반영한다.

NoteBase

문 20.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하며, 이 때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②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③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환 시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에 따라 전환으로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때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해당 금융상품과 조건이 같고 신용상태가 비슷하며 실질적으로 같은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

⑤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 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 만기 전 소멸, 만기 전환 및 조기전환 유도 시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이다.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부채의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뺀 잔액을 자본요소로 인식한다.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은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만기 시 전환되면 발행자는 부채요소를 제거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기존 자본요소도 자본에 계속 남는다. 이 전환으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O. 최초 전환권이 그대로인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면, 지급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일 현재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배분 방법은 최초 발행대가를 두 요소에 나눈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공정가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부분이다. 조기전환을 유도하려고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거나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변경 조건에 따른 전환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 조건에 따른 전환대가의 공정가치 차이는 변경일에 당기손익의 손실로 인식한다.
④ O. 최초 인식 시 부채요소는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채무상품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 즉 그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⑤ O.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외가격이어서 즉시 행사할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만기까지 주가가 변할 가능성에 따른 옵션가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가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환권의 가치를 0으로 보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공정가치 차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새로 제공한 경제적 혜택은 자본의 단순 대체가 아니라 조건 변경으로 생긴 추가대가이므로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의 사건을 먼저 구분한다. 만기 전환은 손익 없음, 원래 전환권을 유지한 조기상환은 지급대가와 거래원가의 부채·자본 배분, 조건을 바꾼 조기전환 유도는 추가 혜택의 공정가치 차이를 당기손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만기 전환은 무손익, 조기상환은 부채·자본 배분, 조기전환 유도대가는 당기손실이다.

NoteBase

문 21. 20x1년 2월 1일 영업을 개시한 (주)세무(12월말 결산법인)는 단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을 1대당 ₩3,000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수량은 20x1년에 500대, 20x2년에 1,000대이고,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주)세무는 동종업계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내에 판매수량 대비 평균 3%의 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증비용은 1대당 평균 ₩1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세무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품의 품질보증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20x2년도에 인식할 제품보증비(A)와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충당부채(B)는? (단,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20×1년 보증이행	20×2년 보증이행
20×1년 판매분	6대	7대
20×2년 판매분	-	12대

① (A): ₩1,500 / (B): ₩1,800

② (A): ₩2,000 / (B): ₩1,800

③ (A): ₩2,000 / (B): ₩2,000

④ (A): ₩3,000 / (B): ₩2,000

⑤ (A): ₩3,000 / (B): ₩3,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확신유형 보증의 당기 제품보증비와 기말 충당부채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문제이다. 당기 제품보증비는 당기 판매분의 예상 보증원가이고, 기말 충당부채는 전기 이월액에 당기 설정액을 더하고 실제 보증이행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조건 정리

20×1년 판매량: 500대
20×2년 판매량: 1,000대
예상 보증요청률: 판매수량의 3%
1대당 평균 보증비용: ₩100
20×1년 보증이행: 20×1년 판매분 6대
20×2년 보증이행: 20×1년 판매분 7대, 20×2년 판매분 12대
20×2년 제품보증비 (A)와 20×2년 말 충당부채 (B)를 구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당기 제품보증비 = 당기 판매수량 × 예상 보증요청률 × 1대당 평균 보증비용
기말 충당부채 = 기초 충당부채 + 당기 제품보증비 - 당기 실제 보증이행액
확신유형 보증은 판매 시점에 예상 보증원가를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실제 보증이행 시 충당부채를 사용하므로 이 공식을 적용한다.

계산 과정

1. 20×1년 제품보증비는 500 × 3% × ₩100 = ₩1, 500이다. 20×1년 실제 보증이행액은 6 × ₩100 = ₩600이므로, 20×2년 기초 충당부채는 ₩1,500-₩600=₩900이다.
2. 20×2년 제품보증비 (A)는 1, 000 × 3% × ₩100 = ₩3, 000이다.
3. 20×2년 실제 보증이행액은 (7 + 12) × ₩100 = ₩1, 900이다.
4. 20×2년 말 충당부채 (B)는 ₩900+₩3,000-₩1,900=₩2,000이다. 따라서 (A)는 ₩3,000, (B)는 ₩2,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A) ₩1,500은 20×1년 판매 500대에 대한 제품보증비이다. 20×2년의 올바른 금액은 (A) ₩3,000, (B) ₩2,000이다.
② X — (A) ₩2,000은 기말 충당부채와 혼동한 값이고, (B) ₩1,800도 충당부채의 이월·사용을 반영한 잔액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A) ₩3,000, (B) ₩2,000이다.
③ X — (B) ₩2,000은 맞지만, (A)는 ₩2,000이 아니라 20×2년 판매분의 예상 보증원가인 ₩3,000이다.
④ O — 20×2년 제품보증비는 ₩3,000이고, 20×2년 말 충당부채는 ₩2,000이므로 두 금액이 모두 맞다.
⑤ X — (A) ₩3,000은 맞지만, (B) ₩3,000은 20×2년 설정액만 본 값이다. 기초 잔액 ₩900과 실제 보증이행액 ₩1,900을 함께 반영하면 (B)는 ₩2,000이다.

오답 포인트

제품보증비와 기말 충당부채를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제품보증비는 20×2년 판매량 1,000대만으로 계산하지만, 기말 충당부채는 20×1년에서 이월된 ₩900을 더하고 20×2년에 실제 이행한 19대의 보증원가 ₩1,900을 차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당기 판매분의 예상 보증원가를 계산하여 당기 비용을 구한다. 다음으로 전기 말 충당부채를 당기 초 잔액으로 이월하고, 당기 설정액을 더한 뒤 실제 보증이행액을 차감하여 기말 잔액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보증비는 당기 판매분의 예상액, 보증충당부채 잔액은 기초 잔액＋당기 설정－실제 이행이다.

NoteBase

문 22.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이 동 일자로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지급)를 ₩951,980에 취득하여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고, 취득당시 손상은 없었다. 동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 (주)세무는 20x1년 말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x1년 말 (주)한국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 (주)세무는 20x2년부터 동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는 수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만기에 수취할 원금은 ₩900,000으로 추정하였다.
○ (주)세무는 20x2년 말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x2년 말 (주)한국의 신용손상이 일부 회복되어 20x3년 말에 이자 ₩70,000과 만기원금상환액 ₩900,000을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 20x1년 말과 20x2년 말 공정가치가 각각 ₩680,000과 ₩840,000이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5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9	2.4018

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x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114,238이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해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4,500 감소한다.

③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148,633 증가한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으로 인하여 20x1년 말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16,215 감소한다.

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동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20x1년 말 자본은 ₩171,980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신용손상 금융자산의 이자수익과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채무상품의 손상손익과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취득원가는 951,980원, 유효이자율은 연 12%, 표시이자는 매년 100,000원이다. 20x1년 말 신용손상 후 예상 현금흐름은 20x3년 말 원금 900,000원뿐이며, 20x2년 말에는 20x3년 말 이자 70,000원과 원금 900,000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가계수는 12% 기준 2기간 단일금액 0.7972, 1기간 단일금액 0.8929를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20x1년 이자수익은 951,980 × 12%이다. 20x1년 말 손실충당금은 손상 인식 직전 총장부금액에서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다. 신용이 손상된 다음 보고기간의 이자수익은 순장부금액에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FVOCI 채무상품은 손실충당금을 자산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므로, 누적 기타포괄손익은 공정가치-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20x1년 이자수익은 951,980 × 12% = 114,238원이다. 현금이자 100,000원을 받으므로 20x1년 말 손상 인식 직전 총장부금액은 951,980 + 114,238 − 100,000 = 966,218원이다.
2. 20x1년 말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900,000 × 0.7972 = 717,480원이고, 손실충당금은 966,218 − 717,480 = 248,738원이다. 따라서 손상손익까지 반영한 20x1년 당기손익 효과는 114,238 − 248,738 = −134,500원이다.
3. 20x2년 이자수익은 신용손상 금융자산의 순장부금액 717,480원에 12%를 적용한 717,480 × 12% = 86,098원이다. 손상환입 전 순장부금액은 803,578원이고, 20x2년 말 새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70,000 + 900,000) × 0.8929 = 866,113원이다. 손상환입액은 866,113 − 803,578 = 62,535원이므로 20x2년 당기순이익은 총 148,633원 증가한다.
4. FVOCI 분류 시 20x1년 말 누적 기타포괄손익은 680,000 − 966,218 + 248,738 = −37,480원이다. 당기손실 134,500원과 기타포괄손실 37,480원을 합하면 자본은 171,980원 감소한다.

선지 판단

① O. 20x1년 이자수익은 취득원가 951,980원에 최초 유효이자율 12%를 적용한 114,238원이다.
② O. FVOCI 채무상품도 이자수익 114,238원과 손상차손 248,738원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20x1년 당기순이익은 134,500원 감소한다.
③ O. 20x2년 이자수익 86,098원과 손상환입액 62,535원의 합계가 148,633원이므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증가한다.
④ X.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16,215원 감소한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공정가치 하락 효과와 손실충당금의 기타포괄손익 조정을 함께 반영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7,480원 감소한다.
⑤ O. 20x1년 당기손실 134,500원과 기타포괄손실 37,480원의 합계가 171,980원이므로 기말 자본은 171,980원 감소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에서는 공정가치와 총장부금액의 차이만 보거나 손실충당금의 기타포괄손익 조정을 잘못 결합하기 쉽다. FVOCI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에 인식하지만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조정되므로, 누적 기타포괄손익 감소액은 116,215원이 아니라 37,480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최초 유효이자율로 이자수익과 예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신용손상 발생연도에는 총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실충당금을 구하고, 다음 연도 이자는 순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FVOCI 채무상품은 당기손익의 손상효과와 기타포괄손익의 공정가치·손실충당금 조정을 분리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용손상 후 이자는 순장부금액 기준이며, FVOCI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되 손실충당금 조정은 기타포괄손익에 나타난다.

NoteBase

문 23.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x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20%를 ₩42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20x1년 1월 1일 현재 (주)한국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000,000으로 장부금액과 일치하였다. (주)세무는 (주)한국의 보통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며, (주)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말 (주)세무가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한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 20x1년 10월 1일에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원가 ₩35,000인 재고자산을 ₩50,000에 판매하였으며, (주)한국은 20x1년 말 현재 (주)세무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50,000 중 ₩20,000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 20x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200,000이고, 기타포괄이익은 ₩20,000이다.

① ₩438,800
② ₩442,800
③ ₩455,800
④ ₩458,000
⑤ ₩462,8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기말 장부금액을 계산하면서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대한 투자자 지분을 반영하고, 하향판매에서 생긴 기말재고 미실현이익은 투자자 지분만큼 제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득원가: 420,000원
지분율: 20%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 200,000원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이익: 20,000원
하향판매 매출액: 50,000원
하향판매 재고자산 원가: 35,000원
피투자자가 보유한 기말재고: 판매가 기준 20,000원
취득원가 420,000원과 취득일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400,000원의 차이 20,000원은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 성격의 금액이므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I_1 = I_0 + P + O - U$

I_0: 취득원가, P: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액, O: 기타포괄이익에 대한 지분액, U: 하향판매 미실현이익 중 투자자 지분액이다.

지분법에서는 취득 후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 중 투자자 지분을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에게 판매한 하향거래의 미실현이익은 기말까지 외부에 판매되지 않은 부분을 구한 뒤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제거한다.

계산 과정

1. 당기순이익 지분액은 200,000원 × 20% = 40,000원이다.
2. 기타포괄이익 지분액은 20,000원 × 20% = 4,000원이다.
3. 하향판매의 전체 매출총이익은 50,000원 - 35,000원 = 15,000원이고, 매출총이익률은 15,000원 ÷ 50,000원 = 30%이다.
4. 기말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은 20,000원 × 30% = 6,000원이다.
5. 이 가운데 제거할 투자자 지분액은 6,000원 × 20% = 1,200원이다.
6. 기말 장부금액은 420,000원 + 40,000원 + 4,000원 - 1,200원 = 462,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438,800'은 틀린 금액이다. 취득원가 대신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400,000원을 출발점으로 삼고 기타포괄이익 지분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오는 값이다. 올바르게는 취득원가 420,000원을 출발점으로 하고 모든 취득 후 변동을 반영한 ₩462,800이다.

② X — '₩442,800'은 틀린 금액이다. 이는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400,000원에 당기순이익 지분액 40,000원과 기타포괄이익 지분액 4,000원을 더하고 1,200원을 제거한 값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된 차이 20,000원을 누락한다. 올바르게는 ₩462,800이다.

③ X — '₩455,800'은 틀린 금액이다. 취득원가 420,000원, 당기순이익 지분액 40,000원, 기타포괄이익 지분액 4,000원 및 미실현이익 제거액 1,200원을 모두 반영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462,800이다.

④ X — '₩458,000'은 틀린 금액이다. 이는 기말재고 미실현이익 6,000원 전액을 차감한 값이지만, 하향판매에서는 투자자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1,200원만 제거한다. 올바르게는 ₩462,800이다.

⑤ O — 취득원가 420,000원에 당기순이익 지분액 40,000원과 기타포괄이익 지분액 4,000원을 더하고 하향판매 미실현이익의 투자자 지분액 1,200원을 차감하면 ₩462,800이 된다.

오답 포인트

취득일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액 400,000원을 기초 장부금액으로 바꾸어 쓰면 취득원가에 포함된 20,000원을 잃게 된다. 또한 하향판매의 미실현이익은 기말재고에 포함된 6,000원 전액이 아니라 그중 투자자 지분 20%인 1,200원만 제거하며, 기타포괄이익의 지분액 4,000원도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분법 기말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시작하여 당기순이익 지분액과 기타포괄이익 지분액을 더한다. 내부거래 재고가 남아 있으면 먼저 기말재고에 포함된 미실현이익을 계산하고, 하향판매에서는 그 금액에 투자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제거한다.

암기 포인트

지분법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 순이익 지분 + 기타포괄이익 지분 - 하향판매 미실현이익의 지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4. 위험회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K-IFRS 제1109호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와 지정 단위, 그리고 지정이 금지되는 예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위험회피수단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이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도록 위험회피관계에 지정하는 금융상품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금융부채도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지정 금융부채는 제외된다. 외화위험이 아닌 위험을 회피할 때 이러한 비파생금융상품은 그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 투자는 외화위험 부분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지정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이러한 지분상품 투자를 제외한 비파생금융자산·금융부채의 외화위험 부분을 외화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X —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은 그 기업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지정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지정할 수 없다'이다.
③ X — 복합계약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독립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이다.
④ X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중 자기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에서 제외된다. 틀린 표현은 '지정할 수 있다'이며, 올바르게는 '지정할 수 없다'이다.
⑤ O — 외화위험회피가 아닌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려면 그 금융상품 전체 또는 그 비례적 부분만 지정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④의 예외를 놓치기 쉽다. ①은 외화위험 부분 지정이 허용된다는 원칙에 기타포괄손익 선택 지분상품 투자의 제외 규정을 섞었고, ⑤는 '위험요소만 임의로 떼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을 지정한다는 점을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해당 상품이 위험회피수단의 적격 상품인지 확인한 뒤 예외를 검토한다. 자기지분상품, 분리 회계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 기타포괄손익 선택 지분상품 투자의 외화위험 부분,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지정 금융부채는 제외한다. 그다음 외화위험 이외의 위험회피에서 비파생금융상품의 지정 단위가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파생 FVTPL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예외를 먼저 확인하고, 비외화위험회피의 지정 단위는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이다.

NoteBase

문 25. (주)세무는 여러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합제품 A와 B, C를 주산물로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부산물 X가 생산된다. 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와 중간제품 F, 부산물 X가 생산되며, 중간제품 F는 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결합제품 B와 C가 생산된다. 1공정과 2공정의 결합원가는 각각 ₩100,000과 ₩40,000이다. 결합제품 B와 C는 각각 3공정과 4공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각 공정의 추가가공원가는 각각 ₩10,000과 ₩20,000이다.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으로 원가를 인식한다.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실현가치법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결합제품 B의 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결합제품 A	결합제품 B	결합제품 C	부산물 X
단위당 판매가격(₩)	100	150	200	20
생산량(개)	1,600	1,000	800	200

① ₩58,800

② ₩60,000

③ ₩63,200

④ ₩65,500

⑤ ₩67,6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결합원가에서 차감한 뒤, 연속된 두 공정의 결합원가를 각 분리점의 순실현가치 비율로 배부하여 결합제품 B의 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부산물 X의 판매가치: 20원 × 200개 = 4,000원
1공정 결합원가: 100,000원
2공정 결합원가: 40,000원
B의 최종 판매가치: 150원 × 1,000개 = 150,000원
C의 최종 판매가치: 200원 × 800개 = 160,000원
B와 C의 추가가공원가: 각각 10,000원과 20,000원
주의할 조건: 부산물 X는 생산기준법으로 인식하므로 생산 시점의 순실현가치 4,000원을 1공정 결합원가에서 차감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제품 i의 순실현가치: $NRV_i = S_i - P_i$
제품 i의 결합원가 배부액: $J_i = J \times \frac{NRV_i}{\sum NRV}$
여기서 S_i는 최종 판매가치, P_i는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 J는 배부대상 결합원가이다. 순실현가치법은 분리점에서 직접 판매가치를 알 수 없는 중간제품이나 추가가공 제품의 상대적 가치를 추정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부산물 X를 생산기준법으로 인식하면 1공정의 주산물 배부대상 결합원가는 100,000원 - 4,000원 = 96,000원이다.
2. 1공정 분리점에서 A의 순실현가치는 160,000원이다. 중간제품 F의 순실현가치는 B와 C의 최종 판매가치 합계에서 1공정 이후의 원가를 모두 차감한 150,000원 + 160,000원 - 40,000원 - 10,000원 - 20,000원 = 240,000원이다.
3. 1공정 결합원가 중 F 배부액은 96,000원 × 240,000원 / (160,000원 + 240,000원) = 57,600원이다.
4. 2공정에서 B와 C에 배부할 결합원가는 F의 전입원가 57,600원과 2공정 결합원가 40,000원의 합계인 97,600원이다.
5. 2공정 분리점에서 B의 순실현가치는 150,000원 - 10,000원 = 140,000원이고, C의 순실현가치는 160,000원 - 20,000원 = 140,000원이다. 따라서 B의 2공정 결합원가 배부액은 97,600원 × 140,000원 / (140,000원 + 140,000원) = 48,800원이다.
6. B의 원가는 결합원가 배부액 48,800원에 3공정 추가가공원가 10,000원을 더한 58,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순차적 순실현가치 배부로 계산한 B의 원가는 48,800원 + 10,000원 = 58,800원이다.
② X — 60,000원은 부산물 X의 가치 4,000원을 1공정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금액 60,000원은 58,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1공정에서 F에 배부된 57,600원과 2공정 결합원가 40,000원을 합한 뒤 B와 C에 1:1로 배부하면 B의 원가는 58,800원이므로, 63,200원은 58,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B와 C의 2공정 분리점 순실현가치는 각각 140,000원으로 같아 97,600원을 절반씩 배부해야 하므로, 65,500원은 58,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B에는 2공정 배부액 48,800원과 B만의 추가가공원가 10,000원만 포함되므로, 67,600원은 58,800원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부산물 X의 4,000원을 차감하지 않으면 ②의 60,000원이 나온다. 또한 1공정에서는 A와 F를 배부 대상으로 삼고, 2공정에서는 F의 전입원가까지 포함한 97,600원을 B와 C에 배부해야 한다. 각 공정의 분리점을 건너뛰어 최종제품 A·B·C에 한꺼번에 배부하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속 공정 결합원가 문제는 부산물 가치의 차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각 분리점마다 순실현가치를 새로 계산한 뒤 전 공정에서 배부된 중간제품 원가를 다음 공정의 결합원가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의 추가가공원가를 더한다.

암기 포인트

부산물 생산기준법은 생산 시 순실현가치를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하고, 연속 공정은 전입원가를 다음 결합원가에 합산한다.

NoteBase

문 26.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10%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x1년의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활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업준비의 활동원가(총액)는?

활동	원가동인(활동계층)	원가동인당 활동원가
작업준비	작업준비횟수(배치수준)	?
재료가공	기계작업시간(단위수준)	₩80
품질검사	생산량(단위수준)	6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000개와 1,440개이다.
◯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420,000과 ₩260,000이다.
◯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5시간이다.

① ₩174,400
② ₩175,600
③ ₩176,800
④ ₩178,400
⑤ ₩179,20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상원가계산에서 예정배부한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먼저 구한 뒤, 활동별로 계산할 수 있는 원가를 차감하여 미지의 작업준비 활동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직접노무원가 합계: 420,000원 + 260,000원 = 680,000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직접노무원가의 110%
재료가공 원가동인: 기계작업시간, 원가동인당 활동원가 80원
품질검사 원가동인: 생산량, 원가동인당 활동원가 60원
구해야 할 값: 작업준비 활동원가 총액

NoteBase

사용할 공식

총 제조간접원가=직접노무원가 합계×110\%
작업준비 활동원가=총 제조간접원가-재료가공 활동원가-품질검사 활동원가
활동분석표가 제조간접원가를 세 활동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총액에서 계산 가능한 두 활동원가를 빼면 작업준비 활동원가가 된다.

계산 과정

1. 총 제조간접원가는 680,000 × 1.10 = 748,000원이 된다.
2. 총 기계작업시간은 제품 A가 2,000 × 1.2 = 2,400시간, 제품 B가 1,440 × 1.5 = 2,160시간이므로 4,560시간이다. 따라서 재료가공 활동원가는 4,560 × 80 = 364,800원이다.
3. 총생산량은 2,000 + 1,440 = 3,440개이므로 품질검사 활동원가는 3,440 × 60 = 206,400원이다.
4. 작업준비 활동원가는 748,000 − 364,800 − 206,400 = 176,8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74,4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74,400원 → 올바른 작업준비 활동원가는 176,800원이다.
② X — 175,6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75,600원 → 올바른 작업준비 활동원가는 176,800원이다.
③ O — 총 제조간접원가 748,000원에서 재료가공 활동원가 364,800원과 품질검사 활동원가 206,400원을 차감하면 176,800원이다.
④ X — 178,4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78,400원 → 올바른 작업준비 활동원가는 176,800원이다.
⑤ X — 179,200원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179,200원 → 올바른 작업준비 활동원가는 176,8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재료가공 활동원가는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에 각 제품의 생산량을 곱해 총 기계작업시간을 구해야 한다. 품질검사 활동원가는 두 제품의 생산량 합계에 60원을 곱한다. 또한 110%는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110%라는 뜻이므로 직접노무원가 합계에 1.10을 곱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예정배부율로 제조간접원가 총액을 구하고, 각 활동의 원가동인 총량에 원가동인당 활동원가를 곱한다. 마지막으로 총액에서 이미 계산한 활동원가를 차감하여 미지의 활동원가를 구한다.

암기 포인트

미지의 활동원가 = 총 제조간접원가 - 나머지 활동원가의 합이다.

NoteBase

문 27.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의 매출원가가 ₩63,840일 때, 기말제품 재고액은?

◯ 당기의 기초제품 재고액은 ₩5,520이다.
◯ 기초재공품 수량은 300개(완성도 80%)이며, 기말재공품 수량은 250개(완성도 60%)이다.
◯ 당기 투입물량은 1,400개이며, 당기 완성품 수량은 1,300개이다.
◯ 품질검사는 완성도 70%시점에서 이루어지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하고,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한다.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50이다.

① ₩8,320
② ₩8,430
③ ₩8,560
④ ₩8,650
⑤ ₩8,78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가중평균법에서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공손 수량과 원가를 구한 뒤, 완성품원가를 이용하여 기말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공품 300개는 완성도 80%이므로 당기 초에 이미 검사시점 70%를 통과한 상태이다. 기말재공품 250개는 완성도 60%이므로 아직 검사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기에 새로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은 1,300개에서 기초재공품 300개를 뺀 1,000개이다. 정상공손은 이 수량의 5%이며,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에 배분한다.

사용할 공식

정상공손수량=(당기완성품수량-기초재공품수량)×5\%
정상공손원가=정상공손수량× 검사시점완성도× 완성품환산량단위당원가
기말제품재고액=기초제품재고액+당기완성품원가-매출원가
기초재공품은 이미 검사시점을 지났고 기말재공품은 아직 검사시점 전이므로, 당기에 검사시점을 새로 통과한 정상품만 정상공손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에 새로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은 1, 300 − 300 = 1, 000개이다.
2. 정상공손 수량은 1, 000 × 5% = 50개이다.
3. 모든 제조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정상공손원가는 검사시점의 완성도 70%를 반영하여 50 × 70% × 50 = 1, 750원이다.
4. 정상공손원가를 정상품에 배분하면 당기 완성품원가는 1, 300 × 50 + 1, 750 = 66, 750원이다.
5. 기말제품 재고액은 5, 520 + 66, 750 − 63, 840 = 8, 43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8,320원은 계산 결과 8,43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8,320원은 올바르게는 8,430원이다.
② O — 기말제품 재고액은 5,520원+66,750원-63,840원=8,430원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8,560원은 계산 결과 8,43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8,560원은 올바르게는 8,430원이다.
④ X — 8,650원은 계산 결과 8,43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8,650원은 올바르게는 8,430원이다.
⑤ X — 8,780원은 계산 결과 8,43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금액 8,780원은 올바르게는 8,430원이다.

오답 포인트

정상공손률 5%를 당기 완성품 1,300개 전체에 곧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 기초재공품 300개는 완성도 80%로 당기 초에 이미 검사시점 70%를 통과했으므로 제외한다. 또한 정상공손원가에는 검사시점까지의 완성도 70%를 반영하고, 그 원가를 정상품에 배분하여 완성품원가에 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의 전후 어디에 있는지 판정한다. 그다음 당기에 검사시점을 새로 통과한 정상품을 기준으로 정상공손 수량을 구하고, 검사시점 완성도를 반영한 정상공손원가를 완성품원가에 배분한 뒤 제품계정의 원가흐름으로 기말제품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정상공손은 검사시점을 새로 통과한 정상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상공손원가는 정상품이 부담한다.

NoteBase

문 28.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며, 20x1년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 제조간접원가 추정 예산식 ₩52,000 + ₩3.5 × 직접노무시간
◯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 4시간
◯ 기준조업도(생산량) 2,600개
◯ 실제생산량 2,400개
◯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9
◯ 조업도차이 ₩4,000(불리)
◯ 능률차이 2,100(불리)

① ₩81,000
② ₩83,700
③ ₩86,400
④ ₩89,100
⑤ ₩91,8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조업도차이로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을 확인하고, 능률차이로 실제직접노무시간을 역산한 뒤 실제배부율을 곱해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준조업도 직접노무시간: 2,600개 × 4시간 = 10,400시간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 2,400개 × 4시간 = 9,600시간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시간당 ₩3.5
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시간당 ₩9
구해야 할 값: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

사용할 공식

조업도차이=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기준조업도시간-표준허용시간)
능률차이=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실제시간-표준허용시간)
실제 제조간접원가=실제배부율×실제시간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준조업도·표준허용시간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능률차이는 실제시간과 표준허용시간의 차이에 변동원가율을 적용해 측정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52,000 ÷ 10,400시간 = 시간당 ₩5이다. 따라서 조업도차이는 ₩5 × (10,400시간 - 9,600시간) = ₩4,000(불리)로 주어진 자료와 일치한다.
2. 능률차이 ₩2,100(불리)는 실제시간이 표준허용시간보다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3.5 × (실제시간 - 9,600시간) = ₩2,100이고, 실제시간 - 9,600시간 = 600시간이므로 실제시간은 10,200시간이다.
3.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시간당 ₩9 × 10,200시간 = ₩91,800이다.

선지 판단

① X. ₩81,000은 실제시간 10,200시간에 실제배부율 ₩9를 곱한 금액이 아니다. ₩81,000 → 올바르게는 ₩91,800이다.
② X. ₩83,700은 실제시간 10,200시간에 실제배부율 ₩9를 곱한 금액이 아니다. ₩83,700 → 올바르게는 ₩91,800이다.
③ X. ₩86,400은 표준허용시간 9,600시간에 실제배부율 ₩9를 곱한 값이다. 실제 발생액에는 실제시간 10,200시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86,400 → 올바르게는 ₩91,800이다.
④ X. ₩89,100은 실제시간 10,200시간에 실제배부율 ₩9를 곱한 금액이 아니다. ₩89,100 → 올바르게는 ₩91,800이다.
⑤ O. 실제시간 10,200시간에 시간당 실제배부율 ₩9를 곱하면 ₩91,800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능률차이의 '불리'를 실제시간이 표준허용시간보다 600시간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③의 ₩86,400은 실제시간이 아니라 표준허용시간 9,600시간을 사용하면 나오는 값이므로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시간을 구하고, 능률차이에서 실제시간을 역산한 다음, 실제배부율과 실제시간을 곱해 실제 발생액을 계산한다.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과 시간 자료가 일관되는지 검산하는 데 사용한다.

암기 포인트

능률차이는 변동원가율 × (실제시간 - 표준허용시간), 실제 발생액은 실제배부율 × 실제시간이다.

NoteBase

문 29.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40%를 예정배부하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 당기의 실제 발생액은 직접재료원가 ₩98,000이고, 직접노무원가 ₩42,000이며, 제조간접원가 ₩56,000이다. 20x1년 재고자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기초	기말
재공품	₩4,000	₩7,000
제품	16,000	12,000

① ₩195,800

② ₩196,000

③ ₩196,400

④ ₩197,000

⑤ ₩199,8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상원가계산에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으로 조정 전 매출원가를 계산한 뒤, 과대배부된 제조간접원가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직접재료원가: ₩98,000
직접노무원가: ₩42,000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직접노무원가의 140%
실제 제조간접원가: ₩56,000
재공품: 기초 ₩4,000, 기말 ₩7,000
제품: 기초 ₩16,000, 기말 ₩12,000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전액 조정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실제 직접노무원가×예정배부율
당기제품제조원가=기초재공품+당기총제조원가-기말재공품
조정 전 매출원가=기초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
조정 후 매출원가=조정 전 매출원가-과대배부액

정상원가계산은 실제 직접재료원가와 실제 직접노무원가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을 더해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예정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이므로,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때 그 차액을 차감한다.

계산 과정

1.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은 ₩42,000 × 140% = ₩58,800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는 ₩98,000 + ₩42,000 + ₩58,800 = ₩198,800이다.
3. 당기제품제조원가는 ₩4,000 + ₩198,800 - ₩7,000 = ₩195,800이다.
4. 조정 전 매출원가는 ₩16,000 + ₩195,800 - ₩12,000 = ₩199,800이다.
5. 예정배부액 ₩58,800이 실제 발생액 ₩56,000보다 ₩2,800 크므로 제조간접원가는 ₩2,800 과대배부되었다.
6. 조정 후 매출원가는 ₩199,800 - ₩2,800 = ₩197,00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95,8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이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가 아니다. 제품계정의 기초·기말 재고와 과대배부액까지 반영한 올바른 금액은 ₩197,000이다.
② X — ₩196,000은 정상원가계산의 원가흐름과 ₩2,800 과대배부 조정을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조정 전 매출원가 ₩199,800에서 ₩2,800을 차감한 ₩197,000이다.
③ X — ₩196,400은 예정배부액 ₩58,800과 실제 제조간접원가 ₩56,000의 차이 ₩2,800을 정확히 반영한 금액이 아니다. 올바른 조정 후 매출원가는 ₩197,000이다.
④ O — 조정 전 매출원가 ₩199,800에서 제조간접원가 과대배부액 ₩2,800을 차감하면 ₩197,000이 된다.
⑤ X — ₩199,800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 매출원가이다. 과대배부액 ₩2,800을 차감하면 올바르게는 ₩197,000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195,8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계산을 멈춘 값이고, ⑤의 ₩199,800은 제품 재고까지 반영했지만 과대배부 조정을 하지 않은 값이다. 가장 중요한 함정은 예정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큰 과대배부를 매출원가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차감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정배부액 계산 → 당기제품제조원가 계산 → 조정 전 매출원가 계산 → 실제액과 예정배부액 비교 → 과대배부는 차감·과소배부는 가산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예정배부액이 실제액보다 크면 과대배부이며, 매출원가 전액 조정에서는 매출원가를 줄인다.

NoteBase

문 30.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모든 원가는 실제 발생액이며, 직접재료원가는 ₩38,000이고, 직접노무원가는 ₩32,000이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기초재공품 수량 300개(전환원가 완성도 40%)
◯ 당기 완성품 수량 1,200개
◯ 기말재공품 수량 350개(전환원가 완성도 60%)
◯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 ₩65

① ₩51,850
② ₩52,350
③ ₩53,450
④ ₩54,950
⑤ ₩55,75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 당기 전환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 뒤, 단위당 전환원가를 곱해 당기 전환원가를 계산하고 직접노무원가를 차감하여 제조간접원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초재공품은 300개이고 전환원가 완성도는 40%이다. 당기 완성품은 1,200개, 기말재공품은 350개이고 기말 전환원가 완성도는 60%이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65이며, 당기 직접노무원가는 ₩32,000이다. 직접재료원가 ₩38,000은 전환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입선출법이므로 기초재공품에 대해서는 당기에 추가된 전환작업 60%만 환산량에 포함한다.

사용할 공식

당기 전환원가 환산량=기초재공품 당기 완성분+당기 착수·완성분+기말재공품 완성분
당기 전환원가=당기 전환원가 환산량×단위당 전환원가
제조간접원가=당기 전환원가-당기 직접노무원가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므로 마지막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초재공품의 당기 전환원가 환산량은 300 × (1 − 0.40) = 180개이다.
2. 당기 착수·완성품은 1,200 − 300 = 900개이므로 환산량은 900개이다.
3.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환산량은 350 × 0.60 = 210개이다.
4. 당기 전환원가 환산량은 180 + 900 + 210 = 1,290개이다.
5. 당기 전환원가는 1,290 × 65 = 83,850원이므로 제조간접원가는 83,850 − 32,000 = 51,85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제조간접원가 ₩51,850과 일치한다.
② X — ₩52,350은 계산 결과보다 ₩500 많다. 올바른 금액은 ₩51,850이다.
③ X — ₩53,450은 계산 결과보다 ₩1,600 많다. 올바른 금액은 ₩51,850이다.
④ X — ₩54,950은 계산 결과보다 ₩3,100 많다. 올바른 금액은 ₩51,850이다.
⑤ X — ₩55,750은 계산 결과보다 ₩3,900 많다. 올바른 금액은 ₩51,850이다.

오답 포인트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 300개 전체가 아니라 당기에 추가로 완성한 60%만 당기 환산량에 포함한다. 또한 ₩65를 곱해 구한 ₩83,850은 제조간접원가가 아니라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한 당기 전환원가이다. 여기서 직접노무원가 ₩32,000을 차감해야 하며, 직접재료원가 ₩38,000은 차감하거나 더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재공품의 미완성분, 당기 착수·완성분, 기말재공품 완성분 순서로 당기 환산량을 구한다. 단위당 전환원가를 곱한 뒤, 제조간접원가를 묻는 경우에는 당기 전환원가에서 직접노무원가를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선입선출법의 기초재공품은 당기 추가 작업분만 포함하며,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NoteBase

문 31. (주)세무는 보조부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원가는 상호배분법으로 배분한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가 ₩140,000인 경우, 보조부문 S1이 제조부문 P1에 제공한 용역제공시간은?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계
	S1	S2	P1	P2	
부문원가	₩80,000	₩160,000	-	-	
S1	30	60	?	?	150 시간
S2	400	200	380	220	1,200 kWh

① 27.6시간

② 28.8시간

③ 30.0시간

④ 31.2시간

⑤ 32.4시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상호배분법에서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을 연립방정식에 반영하여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구한 뒤, 제조부문 P1에 배분된 금액으로 S1의 용역제공시간을 역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S1의 자기소비 30시간과 S2의 자기소비 $200kWh$는 각 부문의 배분기준 합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S1의 배분대상 용역량은 150시간 - 30시간 = 120시간이고, S2의 배분대상 용역량은 $1{,}200kWh - 200kWh = 1{,}000kWh$이다.
S1이 S2에 제공한 비율은 60/120 = 0.5, S2가 S1에 제공한 비율은 400/1,000 = 0.4, S2가 P1에 제공한 비율은 380/1,000 = 0.38이다.
구해야 할 값은 S1이 P1에 제공한 용역시간 x이다.

사용할 공식

S1과 S2의 상호배분 후 총원가를 각각 C_1, C_2라 하면 다음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C_1 = 80{,}000 + 0.4C_2$
$C_2 = 160{,}000 + 0.5C_1$
상호배분법은 다른 보조부문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원가까지 각 보조부문 원가에 포함하므로 이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연립방정식을 풀면 다음과 같다.
$C_1 = 80{,}000 + 0.4(160{,}000 + 0.5C_1)$
$0.8C_1 = 144{,}000, \quad C_1 = 180{,}000$
$C_2 = 160{,}000 + 0.5(180{,}000) = 250{,}000$
S2에서 P1으로 배분되는 원가는 250,000원 × 0.38 = 95,000원이다. P1에 배분된 보조부문원가 총액이 140,000원이므로 S1에서 P1으로 배분되는 원가는 45,000원이다.
S1 원가의 시간당 배분액은 180,000원 ÷ 120시간 = 1,500원이고, 따라서 $x = 45{,}000/1{,}500 = 30.0$ 시간이다.

선지 판단

① X — 27.6시간이면 S1의 P1 배분액은 41,400원이고 S2 배분액 95,000원을 더해도 136,400원이다. 주어진 14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올바른 시간은 30.0시간이다.
② X — 28.8시간이면 S1의 P1 배분액은 43,200원이고 총배분액은 138,200원이다. 주어진 금액보다 1,800원 적으며, 올바른 시간은 30.0시간이다.
③ O — 30.0시간이면 S1의 P1 배분액은 45,000원이고 S2 배분액 95,000원을 더한 금액이 정확히 140,000원이다.
④ X — 31.2시간이면 S1의 P1 배분액은 46,800원이고 총배분액은 141,800원이다. 주어진 금액보다 1,800원 많으며, 올바른 시간은 30.0시간이다.
⑤ X — 32.4시간이면 S1의 P1 배분액은 48,600원이고 총배분액은 143,600원이다. 주어진 금액보다 3,600원 많으며, 올바른 시간은 30.0시간이다.

오답 포인트

표의 합계 150시간과 1,200 kWh를 그대로 분모로 쓰는 것이 함정이다. 자기소비량인 S1의 30시간과 S2의 200 kWh를 제외한 120시간과 1,000 kWh를 배분기준 합계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P1의 140,000원은 S1 배분액만이 아니라 S1과 S2에서 받은 보조부문원가의 합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보조부문의 자기소비량을 총용역량에서 제외하여 배분비율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상호배분 후 총원가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하고, 특정 제조부문의 총배분액에서 이미 계산되는 다른 보조부문 배분액을 차감하여 미지의 용역량을 역산한다.

암기 포인트

상호배분법은 '자기소비 제외 → 보조부문 상호용역 연립방정식 → 제조부문별 배분'의 순서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32. (주)세무는 제품 A와 B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 전환원가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x1년 4월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 (단, 재공품은 없다.)

활동	원가동인(시간당)	활동원가
작업준비	작업준비시간	₩136,800
조립작업	기계작업시간	276,000
품질검사	품질검사시간	11,970
합계		₩424,770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560개와 1,20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생산량은 각각 40개와 50개이다.
◯ 제품 A와 B의 배치당 작업준비시간은 2시간으로 동일하다.
◯ 제품 A와 B의 제품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27분과 15분이다.
◯ 제품 A와 B의 품질검사는 2배치당 1회 이루어지며, 회당 검사시간은 1시간으로 동일하다.

① ₩180,810
② ₩182,420
③ ₩185,250
④ ₩186,340
⑤ ₩187,68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에서는 활동별 원가동인의 총량으로 배부율을 구한 뒤, 제품 A가 소비한 원가동인 수량을 곱하여 활동원가를 배부한다.

조건 정리

제품 A의 배치 수는 560/40 = 14배치이고, 제품 B의 배치 수는 1, 200/50 = 24배치이다.
작업준비시간은 A가 14 × 2 = 28시간, B가 24 × 2 = 48시간이다.
기계작업시간은 A가 560 × 27/60 = 252시간, B가 1, 200 × 15/60 = 300시간이다.
품질검사시간은 2배치당 1회, 회당 1시간이므로 A가 14/2 = 7시간, B가 24/2 = 12시간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활동별 배부율은 활동원가/전체 원가동인 수량이고, 제품 A 배부액은 활동별 배부율×제품 A의 원가동인 수량이다. 각 활동이 소비한 작업시간에 따라 원가가 발생하므로 작업준비시간, 기계작업시간, 품질검사시간을 각각 배부기준으로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작업준비원가: $136,800 \times \frac{28}{28+48} = 50,400$원이다.
2. 조립작업원가: $276,000 \times \frac{252}{252+300} = 126,000$원이다.
3. 품질검사원가: $11,970 \times \frac{7}{7+12} = 4,410$원이다.
4. 제품 A에 배분될 활동원가는 $50,400 + 126,000 + 4,410 = 180,810$원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된 제품 A의 활동원가 180,810원과 일치한다.
② X — '₩182,420'은 세 활동의 배부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80,810이다.
③ X — '₩185,250'은 세 활동의 배부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80,810이다.
④ X — '₩186,340'은 세 활동의 배부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80,810이다.
⑤ X — '₩187,680'은 세 활동의 배부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금액은 ₩180,810이다.

오답 포인트

배치 수를 생산량처럼 그대로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작업준비는 배치 수에 배치당 2시간을 곱하고, 품질검사는 배치 수를 2로 나누며, 기계작업시간은 분을 시간으로 환산해야 한다. 또한 각 활동은 서로 다른 원가동인을 사용하므로 전체 활동원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배부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품별 배치 수를 구하고, 이를 활동별 원가동인 수량으로 변환한다. 그다음 활동별로 전체 동인 수량 대비 제품 A의 소비 비율을 구하여 해당 활동원가를 배부한 뒤 세 배부액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활동기준원가계산의 핵심은 '활동별 원가 ÷ 활동별 총동인 × 제품별 동인 사용량'이다.

NoteBase

문 33. (주)세무는 20x1년 제품 A를 단위당 판매가격 ₩500에 1,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연간 고정원가는 ₩60,000(감가상각비 ₩14,000 포함)이며,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300단위이다. (주)세무의 법인세율이 30%일 때,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수량은?

① 200단위

② 220단위

③ 240단위

④ 260단위

⑤ 280단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으로 단위당 공헌이익을 역산하고, 감가상각비를 비현금비용으로 가산하여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판매가격: 단위당 500원
연간 고정원가: 60,000원
감가상각비: 14,000원
손익분기점 판매수량: 300단위
법인세율: 30%
구해야 할 값: 세후영업현금흐름이 0이 되는 판매수량

사용할 공식

손익분기점에서는 영업이익이 0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당 공헌이익=고정원가손익분기점 판매수량
세후영업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세후영업현금흐름=(Q× 단위당 공헌이익-고정원가)(1-t)+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 계산에서는 비용이지만 현금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세후영업이익에 다시 더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다.
60,000원300단위=200원/단위
2. 세후영업현금흐름이 0이 되는 조건을 세운다.
$(Q \times 200 - 60{,}000)(1 - 0.30) + 14{,}000 = 0$
3. 판매수량을 계산한다.
$(Q \times 200 - 60{,}000) \times 0.7 = -14{,}000$
$Q \times 200 - 60{,}000 = -20{,}000$
Q=200단위
따라서 세후현금흐름분기점 판매수량은 20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O — 계산 결과와 같은 200단위이므로 옳다. 이때 영업손실은 20,000원이고, 세후영업손실 14,000원에 감가상각비 14,000원을 더하면 현금흐름은 0이다.
② X — 220단위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220단위'이며, 올바르게는 '200단위'이다.
③ X — 240단위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240단위'이며, 올바르게는 '200단위'이다.
④ X — 260단위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260단위'이며, 올바르게는 '200단위'이다.
⑤ X — 280단위는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280단위'이며, 올바르게는 '200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손익분기점 300단위를 그대로 현금흐름분기점으로 보면 안 된다. 감가상각비는 비현금비용이므로 현금흐름 계산에서 다시 더하며, 법인세율을 반영할 때에는 감가상각비 14,000원을 단순히 고정원가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세후영업이익과의 관계를 이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손익분기점 관계로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 다음, 영업이익×(1-t)+감가상각비=0을 세워 판매수량을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세후영업현금흐름은 '영업이익의 세후 금액 + 감가상각비'이다.

NoteBase

문 34. (주)세무의 A사업부는 투자중심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단, 법인세율은 25%이다.)

투자(투하)자본	₩500,000	가중평균자본비용	12%
세전영업이익	200,000	최저필수수익률	10%

① ₩60,000
② ₩70,000
③ ₩80,000
④ ₩90,000
⑤ ₩100,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후영업이익에서 투자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투자(투하)자본 500,000원, 세전영업이익 200,000원, 가중평균자본비용 12%, 최저필수수익률 10%, 법인세율 25%
구해야 할 값: A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EVA)
주의할 조건: EVA의 자본비용은 최저필수수익률 10%가 아니라 가중평균자본비용 12%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세후영업이익(NOPAT)=세전영업이익×(1-법인세율)
EVA=NOPAT-(투자자본×가중평균자본비용)
EVA는 영업활동으로 얻은 세후이익 중 투자자본 제공자에게 부담하는 자본비용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세후영업이익은 $200{,}000 \times (1 - 0.25) = 150{,}000$원이 된다.
2. 자본비용은 $500{,}000 \times 0.12 = 60{,}000$원이 된다.
3. 따라서 $EVA = 150{,}000 - 60{,}000 = 90{,}0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60,000은 투자자본 500,000원에 가중평균자본비용 12%를 곱한 자본비용일 뿐 EVA가 아니다. '₩60,000'은 '₩9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계산된 EVA 9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70,000'은 '₩9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계산된 EVA 9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80,000'은 '₩90,000'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세후영업이익 150,000원에서 자본비용 60,000원을 차감하면 ₩90,000이 된다.
⑤ X — 최저필수수익률 10%를 가중평균자본비용 대신 잘못 적용하면
$150{,}000 - 500{,}000 \times 0.10 = 100{,}000$원이 나온다. '₩100,000'은 '₩90,000'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세전영업이익에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EVA의 자본비용률로 가중평균자본비용 12% 대신 최저필수수익률 10%를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⑤는 최저필수수익률을 잘못 사용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전영업이익을 세후영업이익으로 바꾸고, 투자자본에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곱해 자본비용을 구한 뒤,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다.

암기 포인트

EVA는 '세후영업이익 - 투자자본 × 가중평균자본비용'이다.

NoteBase

문 35. (주)세무는 20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단일 제품 A를 생산 · 판매하고 있다. 당기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다. 제품의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000이 많은 경우, 20x1년 제품 A의 기말재고수량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45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
단위당 변동판매비와관리비	50	총고정판매비와관리비	10,000

① 350단위
② 400단위
③ 420단위
④ 450단위
⑤ 500단위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가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임을 이용해 기말재고수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당기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40,000원이다.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의 영업이익보다 20,000원 많으며, 영업 개시 첫해이므로 기초재고는 없다. 기말재공품도 없으므로 두 영업이익의 차이는 기말제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 발생한다. 판매가격, 변동제조원가 및 고정판매비와관리비는 이 차이를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총고정제조간접원가생산량
기초재고가 없는 첫해의 이익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기말재고수량×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당기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고 다음 기간으로 이연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0,000 ÷ 1,000 = 40원이 된다.
2. 기말재고수량을 Q라고 하면 20,000 = Q × 40이다.
3. 따라서 Q = 20,000 ÷ 40 = 500단위이다.

선지 판단

① X. 350단위이면 이익 차이는 350 × 40 = 14,000원으로, 주어진 20,000원과 다르다. 틀린 수량 350단위는 올바르게는 500단위이다.
② X. 400단위이면 이익 차이는 400 × 40 = 16,000원으로, 주어진 20,000원과 다르다. 틀린 수량 400단위는 올바르게는 500단위이다.
③ X. 420단위이면 이익 차이는 420 × 40 = 16,800원으로, 주어진 20,000원과 다르다. 틀린 수량 420단위는 올바르게는 500단위이다.
④ X. 450단위이면 이익 차이는 450 × 40 = 18,000원으로, 주어진 20,000원과 다르다. 틀린 수량 450단위는 올바르게는 500단위이다.
⑤ O. 500단위이면 기말재고에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 × 40 = 20,000원으로 주어진 이익 차이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총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원을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 1,000단위로 나누어 단위당 40원을 구해야 한다. 또한 고정판매비와관리비 10,000원은 두 원가계산에서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영업이익 차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초재고가 없는 첫해에는 먼저 총고정제조간접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하고, 영업이익 차이를 이 금액으로 나누어 기말재고수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첫해의 전부원가계산 이익 우위액은 기말재고에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즉, 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수량에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곱한 금액이다.

NoteBase

문 36. (주)세무의 20x1년 제품 A와 B의 생산 ·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20x1년 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이 3,400시간일 때, 최적의 제품배합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구 분	제품 A	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	₩500	₩1,000
단위당 변동원가	300	500
단위당 기계작업시간	1시간	2시간
최대 판매가능수량	1,000단위	1,500단위

① ₩800,000

② ₩830,000

③ ₩850,000

④ ₩900,000

⑤ ₩930,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제약자원인 기계작업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을 비교하여 생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대 판매가능수량과 총 이용가능시간을 반영해 최대공헌이익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제품 A: 단위당 판매가격 500원, 단위당 변동원가 300원, 단위당 기계작업시간 1 시간, 최대 판매가능수량 1,000단위이다.
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 1,000원, 단위당 변동원가 500원, 단위당 기계작업시간 2 시간, 최대 판매가능수량 1,500단위이다.
총 기계의 최대이용가능시간은 3,400 시간이다.

사용할 공식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변동원가이다.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 단위당 제약자원 사용량이다.
기계작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기계작업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부터 생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제품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500 − 300 = 200원이고, 기계작업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은 200 ÷ 1 = 200원이다.
2. 제품 B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1, 000 − 500 = 500원이고, 기계작업시간 1시간당 공헌이익은 500 ÷ 2 = 250원이다.
3. 시간당 공헌이익이 더 큰 B를 최대 판매가능수량인 1,500단위 생산한다. 사용시간은 1,500×2=3,000 시간, 공헌이익은 1, 500 × 500 = 750, 000원이다.
4. 남은 시간은 3,400-3,000=400 시간이므로 A를 400단위 생산한다. A의 공헌이익은 400 × 200 = 80, 000원이다.
5. 최대공헌이익은 750, 000 + 80, 000 = 830, 00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800,000원은 최적 배합의 최대공헌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최대공헌이익은 830,000원이다.
② O — B 1,500단위와 A 400단위의 공헌이익 합계가 830,000원이므로 옳다.
③ X — 850,000원은 계산 결과보다 20,000원 크다. 올바른 최대공헌이익은 830,000원이다.
④ X — 900,000원은 기계작업시간 제약과 최대 판매가능수량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최대공헌이익은 830,000원이다.
⑤ X — 930,000원은 최적 배합으로 달성할 수 없는 금액이다. 올바른 최대공헌이익은 83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B의 단위당 공헌이익 500원만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 끝내면 안 된다. 병목자원이 기계작업시간이므로 시간당 공헌이익을 비교해야 하며, B를 1,500단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는 상한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약자원이 있는 제품배합 문제는 각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을 구한 뒤, 이를 제약자원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 큰 제품부터 판매 한도까지 생산하고 남은 자원을 다음 제품에 배분한다.

암기 포인트

병목자원이 있으면 '제품 1개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병목자원 1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문 37. (주)세무의 20x1년 4월 제품 A의 매출액은 ₩16,000(단위당 판매가격 ₩100)이고, 총비용은 ₩20,000으로 ₩4,00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공헌이익률은 25%이다. 4월과 5월의 원가구조는 동일하며, 5월의 목표판매수량을 200단위로 설정하고 광고선전비 ₩2,150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하였다. 5월의 세후목표이익 ₩1,000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당 판매가격은? (단, 법인세율은 20%이다.)

① ₩115

② ₩122

③ ₩132

④ ₩142

⑤ ₩155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헌이익률로 단위당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한 뒤, 세후목표이익을 세전목표이익으로 환산하여 목표판매가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4월 판매수량: 16,000원 ÷ 100원 = 160단위
공헌이익률: 25%
4월 총비용: 20,000원
5월 목표판매수량: 200단위
5월 추가 광고선전비: 2,150원
세후목표이익: 1,000원
법인세율: 20%
주의할 조건: 4월과 5월의 원가구조가 같으므로 4월 자료에서 구한 단위당 변동비를 5월에도 적용하며, 세후목표이익은 반드시 세전금액으로 환산한다.

사용할 공식

변동비율은 1-공헌이익률이고, 단위당 변동비는 단위당 판매가격× 변동비율이다.
세전목표이익은 세후목표이익÷(1-법인세율)이다.
목표판매가격을 P, 단위당 변동비를 v, 고정비를 F, 세전목표이익을 T, 목표판매수량을 Q라고 하면 다음 식을 사용한다.
$P = v + \frac{F+T}{Q}$
판매수량이 주어졌으므로 총공헌이익이 고정비와 세전목표이익의 합을 충당하도록 단위당 공헌이익을 정하는 공식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4월 변동비율은 1 − 0.25 = 0.75이므로 단위당 변동비는 100 × 0.75 = 75, 즉 75원이다.
2. 4월 총변동비는 75 × 160 = 12,000, 즉 12,000원이고, 고정비는 20,000 − 12,000 = 8,000, 즉 8,000원이다.
3. 5월에는 광고선전비가 추가되므로 고정비는 8,000 + 2,150 = 10,150, 즉 10,150원이다.
4. 세전목표이익은 1,000 ÷ (1 − 0.20) = 1,250, 즉 1,250원이다.
5. 필요한 단위당 공헌이익은 (10,150 + 1,250) ÷ 200 = 57, 즉 57원이다.
6. 따라서 단위당 판매가격은 75 + 57 = 132, 즉 132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115원일 때 세전이익은 200 × (115 − 75) − 10,150 = −2,150, 즉 2,150원 손실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올바른 판매가격은 132원이다.
② X — 122원일 때 세전이익은 200 × (122 − 75) − 10,150 = −750, 즉 750원 손실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올바른 판매가격은 132원이다.
③ O — 132원일 때 세전이익은 200 × (132 − 75) − 10,150 = 1,250, 즉 1,250원이고, 세후이익은 1,250 × 0.8 = 1,000, 즉 1,000원이다.
④ X — 142원일 때 세전이익은 3,250원, 세후이익은 2,600원이므로 목표이익 1,000원을 초과한다.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는 판매가격은 132원이다.
⑤ X — 155원일 때 세전이익은 5,850원, 세후이익은 4,680원이므로 목표이익 1,000원을 초과한다.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는 판매가격은 132원이다.

오답 포인트

세후목표이익 1,000원을 그대로 고정비에 더하면 안 된다. 법인세율 20%를 반영하여 세전목표이익 1,250원으로 환산해야 한다. 또한 공헌이익률 25%는 판매가격 100원에 대한 비율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25원, 단위당 변동비는 75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헌이익률로 단위당 변동비를 구하고, 기존 총비용에서 총변동비를 빼 고정비를 구한다. 그다음 추가 고정비를 반영하고 세후목표이익을 세전으로 환산한 뒤, 필요한 단위당 공헌이익을 판매가격에 더한다.

암기 포인트

세후목표이익은 세전으로 환산하고, 목표판매가격은 '단위당 변동비 + (고정비 + 세전목표이익) ÷ 판매수량'으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38. (주)세무가 자가제조하고 있는 부품 A의 100단위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국세로부터 부품 A 100단위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분석 중이다. (주)국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중 30%는 회피가능하고, 감독자는 추가비용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주)세무가 (주)국세에 제시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300	감독자 급여	₩20,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200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50,0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00		

① ₩700

② ₩750

③ ₩800

④ ₩850

⑤ ₩95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자가제조와 외부구입의 의사결정에서 외부구입 시 회피되는 원가만 관련원가로 보아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직접재료원가: 단위당 300원
직접노무원가: 단위당 2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단위당 100원
감독자 급여: 총 20,000원이며 외부구입 시 감독자를 추가비용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전액 회피가능하다.
공통제조간접원가 배부액: 총 50,000원 중 30%인 15,000원만 회피가능하다.
생산량: 100단위

사용할 공식

단위당 최대구입가격 = 외부구입으로 회피되는 총원가 ÷ 구입수량

외부구입가격이 이 금액 이하이면 자가제조보다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배부된 원가라도 회피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원가에서 제외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100단위의 변동원가는 직접재료원가 30,000원, 직접노무원가 20,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10,000원이다.
2. 감독자 급여 20,000원은 해고로 회피할 수 있고, 공통제조간접원가의 회피가능액은 50,000원 × 30% = 15,000원이다.
3. 회피가능한 총원가는 다음과 같다.

$$30,000 + 20,000 + 10,000 + 20,000 + (50,000 \times 0.30) = 95,000$$

4.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다음과 같다.

$$95,000 \div 100 = 950$$

따라서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950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700원은 계산된 단위당 최대구입가격 950원보다 250원 적다. 올바르게는 950원이다.
② X — 750원은 변동원가 600원에 회피가능 공통제조간접원가 150원만 더한 값으로, 회피가능한 감독자 급여 단위당 20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950원이다.
③ X — 800원은 변동원가 600원에 회피가능한 감독자 급여 단위당 200원만 더한 값으로, 회피가능 공통제조간접원가 단위당 150원을 누락한 금액이다. 올바르게는 950원이다.
④ X — 850원은 계산된 단위당 최대구입가격 950원보다 100원 적다. 올바르게는 950원이다.
⑤ O — 회피가능한 총원가 95,000원을 100단위로 나눈 950원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감독자 급여를 고정원가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거나, 배부된 공통제조간접원가 50,000원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함정이다. 감독자 급여는 해고로 전액 회피되므로 포함하고, 공통제조간접원가는 회피가능한 30%만 포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가제조·외부구입 문제에서는 각 원가가 외부구입 시 실제로 사라지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회피가능한 총원가를 필요한 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최대구입가격은 배부원가가 아니라 회피가능원가의 합계이다. 고정원가도 회피되면 포함하고, 배부원가도 회피되지 않으면 제외한다.

NoteBase

문 39. (주)세무는 상품매매기업으로 20x1년 3분기의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의 상품매입 중 40%는 현금매입, 60%는 외상매입이고, 외상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의 다음 달에 전부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세무의 예상 매출총이익률은 25%이다. 매월 말의 상품재고로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를 보유할 때, (주)세무가 상품매입대금으로 20x1년 8월에 지급해야 할 현금지출액은?

	7월	8월	9월
매출액	₩12,000	₩15,000	₩18,000

① ₩9,625

② ₩9,725

③ ₩9,825

④ ₩10,125

⑤ ₩10,22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매출총이익률로 월별 매출원가를 구한 뒤 목표 기말재고를 반영하여 7월과 8월의 매입액을 계산하고, 현금매입과 전월 외상매입의 지급액을 합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매출총이익률이 25%이므로 매출원가율은 75%이다.
상품매입액의 40%는 매입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는 외상매입하여 다음 달에 전액 지급한다.
매월 말 목표 상품재고는 다음 달 매출원가의 10%이다.
따라서 8월 현금지출액에는 8월 매입액의 40%와 7월 매입액의 60%가 포함된다.

사용할 공식

매출원가율은 1-매출총이익률이다.
매입액=매출원가+기말상품재고-기초상품재고
8월 현금지출액=8월 매입액×40\%+7월 매입액×60\%
재고자산의 수량 흐름에서 기초재고+당기매입=매출원가+기말재고이므로 매입액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월별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7월: 12,000원 × 75% = 9,000원
8월: 15,000원 × 75% = 11,250원
9월: 18,000원 × 75% = 13,500원

2. 월말 목표재고를 계산한다.
6월 말 재고이자 7월 기초재고: 7월 매출원가 9,000원의 10% = 900원
7월 말 재고이자 8월 기초재고: 8월 매출원가 11,250원의 10% = 1,125원
8월 말 재고: 9월 매출원가 13,500원의 10% = 1,350원

3. 7월과 8월의 매입액을 계산한다.
7월 매입액 = 9,000원 + 1,125원 - 900원 = 9,225원
8월 매입액 = 11,250원 + 1,350원 - 1,125원 = 11,475원

4. 8월 현금지출액을 계산한다.
8월 현금매입 지급액 = 11,475원 × 40% = 4,590원
7월 외상매입 지급액 = 9,225원 × 60% = 5,535원
따라서 8월 현금지출액은 4,590원 + 5,535원 = 10,125원이다.

선지 판단

① X — '₩9,625'는 계산된 8월 현금지출액 10,125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10,125'이다.
② X — '₩9,725'는 8월 현금매입 지급액 4,590원과 7월 외상매입 지급액 5,535원의 합계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10,125'이다.
③ X — '₩9,825'는 목표재고를 반영하여 구한 7월·8월 매입액의 지급 시차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10,125'이다.
④ O — '₩10,125'는 8월 매입액의 40%인 4,590원과 7월 매입액의 60%인 5,535원을 합한 금액이다.
⑤ X — '₩10,225'는 계산 결과보다 100원 크다. 올바르게는 '₩10,125'이다.

오답 포인트

8월 매출원가나 8월 매입액을 곧바로 현금지출액으로 보면 안 된다. 8월에는 당월 매입액 중 현금매입분 40%만 지급하고, 7월 외상매입분 60%를 함께 지급한다. 또한 7월 매입액을 구할 때 7월 기초재고는 7월 매출원가의 10%, 7월 기말재고는 8월 매출원가의 10%라는 시점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매출액에 매출원가율을 적용해 월별 매출원가를 구하고, 다음 달 매출원가로 각 월말 목표재고를 계산한 뒤, 매입액 공식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출월을 기준으로 당월 현금매입분과 전월 외상매입분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매입액은 '매출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현금지출액은 '당월 현금매입 + 지급기일이 도래한 외상매입'이다.

NoteBase

문 40. (주)세무는 20x1년 제품 B의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판매하려고 한다. 제품 B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이고,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이다. (주)세무는 판매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다. (주)세무는 제품 B와 유사한 제품 A의 과거 경험자료를 기초로 제품 B를 50단위와 60단위 판매할 확률을 각각 40%와 60%로 평가하였다. (주)세무가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할 경우, 그 기대영업이익은?

◯ 방안 1: 고정급여 ₩40,000을 지급
◯ 방안 2: 고정급여 ₩20,000과 매출액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

① ₩7,600
② ₩8,000
③ ₩8,600
④ ₩9,600
⑤ ₩11,000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급여방안의 판매량별 영업이익을 구한 뒤 확률을 곱해 기대영업이익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000, 총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이다.
판매량은 50단위일 확률이 40%, 60단위일 확률이 60%이다.
방안 1은 고정급여 ₩40,000을 지급하고, 방안 2는 고정급여 ₩20,000과 매출액의 20%를 지급한다.

사용할 공식

판매량을 Q라고 하면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영업이익=매출액-변동제조원가-고정제조간접원가-영업사원 급여
기대영업이익=Σ(판매량별 영업이익$\times$발생확률)
급여방안마다 고정급과 매출액 연동 성과급이 다르므로 먼저 각 판매량에서의 영업이익을 구하고, 그 결과를 확률가중하여 비교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방안 1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제조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급여를 차감한다.
50단위 판매 시: ₩100,000 - ₩50,000 - ₩5,000 - ₩40,000 = ₩5,000
60단위 판매 시: ₩120,000 - ₩60,000 - ₩5,000 - ₩40,000 = ₩15,000
기대영업이익: ₩5,000 × 40% + ₩15,000 × 60% = ₩11,000

2. 방안 2
매출액의 20%인 성과급은 50단위 판매 시 ₩20,000, 60단위 판매 시 ₩24,000이다.
50단위 판매 시: ₩100,000 - ₩50,000 - ₩5,000 - ₩20,000 - ₩20,000 = ₩5,000
60단위 판매 시: ₩120,000 - ₩60,000 - ₩5,000 - ₩20,000 - ₩24,000 = ₩11,000
기대영업이익: ₩5,000 × 40% + ₩11,000 × 60% = ₩8,600

3. 방안 선택
방안 1의 기대영업이익 ₩11,000이 방안 2의 ₩8,600보다 크므로 방안 1을 선택한다.

선지 판단

① X — ₩7,600은 어느 방안의 기대영업이익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값 ₩7,600 → 올바르게는 기대영업이익이 더 큰 방안 1의 ₩11,000이다.
② X — ₩8,000은 방안 1의 ₩11,000과 방안 2의 ₩8,600 중 큰 금액이 아니다. 틀린 값 ₩8,000 → 올바르게는 ₩11,000이다.
③ X — ₩8,600은 방안 2의 기대영업이익이지만,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1의 금액은 아니다. 틀린 값 ₩8,600 → 올바르게는 방안 1의 ₩11,000이다.
④ X — ₩9,600은 두 방안의 기대영업이익 계산 결과가 아니다. 틀린 값 ₩9,600 → 올바르게는 ₩11,000이다.
⑤ O — 방안 1의 기대영업이익은 ₩11,000이고 방안 2의 기대영업이익은 ₩8,600이므로, 최댓값은 ₩11,000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8,600은 방안 2만 정확히 계산하고 방안 1과 비교하지 않을 때 선택하기 쉬운 값이다. 문제는 특정 방안의 기대영업이익이 아니라 두 방안 중 기대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금액을 묻는다. 또한 방안 2의 성과급 20%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에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안별 의사결정 문제는 각 대안에 대해 '상황별 이익 계산 → 확률가중 기대값 계산 → 기대값 비교'의 순서로 판단한다.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판매량별 매출액에 각각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기대이익은 상황별 이익의 확률가중평균이며, 의사결정에서는 대안별 기대이익을 모두 구한 뒤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

NoteBase